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작게
빅맨평생통장
특이자가 오르면 보존금리로 내립때는 약정금리로!
■ 고객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0월 1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계는 위대한 뱃사공으로서,
능히 생사의 바다를 건네준다.
〈마하승기율〉

법회 안내

무진법장사 (02)932-2333
일요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지역법문법회 매주 목·금 오후2시
거사법회 매월 첫째 목 오후7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4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창원 안국사 (0551)96-8440
초하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6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외선사 (0364)81-3694
초하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가족법회 매주 금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전 영선사 (042)523-0813
거사불법회 매월 첫째 일 오후6시
대불련법회 매주 수 오후6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광택 명법사 (0333)655-3215
거사불법회 1 · 3주 일 오전10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전11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광양 보광사(0667)763-1192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예천포교원(0584)654-6788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중고생보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법공양판 발행
차불로이드 4면

단풍객 滿山…포교 空山

안내판으론 '부처님 전하기' 역부족…대책 절실

회사원 K씨는 지난 3일 개천절 휴일에 가족들과 강원도로 단풍놀이를 갔다.

가는 길이나 오는 길의 교통 혼잡을 예상하면서도 절과 단풍을 본다는 기쁨에 K씨는 들뜬 마음으로 가족과 산을 향했다. 이제 막 붉게 치장한 산빛의 아름다움과 북적이는 단풍인파, 그리고 말끔히 단장된 사찰이 있어 K씨의 가족은 즐거운 단풍놀이를 할 수 있었다.

"아빠 이 절은 굉장히 큰데 언제 지은 거야."

국민학교 3학년인 밤의 질문에 K씨는 법당앞 안내판을 읽어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절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절안내용 전단이라도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10월이 되면서 주말과 휴일 전국의 산사에 단풍객이 몰려들고 있다. 유명산 계곡과 사찰에는 적게는 몇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단풍객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그 많은 인파를 향한 사찰측의 포교의지는 간 곳이 없다. 문화재나 사적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탑등에는 안내판이 서 있으나 이같이 외래적인 시설은 포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몰려드는 수백만 단풍객을 위한 사찰측의 적절한 포교전략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찰과 불교를 알리는 전단의 배포나 학생·청년회 회원을 동원한 사찰 및 길 안내·자연보호 캠페인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해마다 거론되는 단풍객을 향한 포교대책이 그때마다 불발로 끝나는 것은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무관심과 무성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란 뼈아픈 지적이 올해도 여지없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의 유명 관광사찰은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를 '포교특별기간'으로 설정 각종 문화행사와 특별법회등을 기획, 단풍객들의 눈과 마음에 불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관광사찰의 노력뿐 아니라 포교원과 종단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연태 기자〉



헐리는 '정화 40년'

지난 57년 8월 불교정화를 기념하기 위해 조계사 경내에 세워진 정화회관이 지난 5일 헐렸다. 조계사는 이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탈법당인 '통일기원 만불보전'을 신축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종토·토초세 면제 즉각 이행을"

조계종 본사주의회의, 전국 백만인 서명운동 동참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들은 지난 5일 주지회의를 갖고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문화유적을 피해 노선을 우회 △토초세와 종토세 면세조치 즉각이행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 반대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집권여당과 정부당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종토세 면세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전국 본말사 스님들이 모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사찰등급제도 시행 △종무지도 감사 및 재정실태 파악 △사찰신도회 구성 등의 안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본사 주지들은 사찰등급제도가 공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사찰 신도회 구성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신도회 구성을 빠른 시일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재정실태 조사에 나서
조계종, 90여사찰 실사

조계종 '96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실태 조사위원회가 구성, 9일부터 17일까지 전국 90여 사찰에 대한 재정실태파악에 들어간다.

종회 각 상임분과위 추천 21명 종회의원과 집행부 부·국·과·계장등, 5명씩 10개반으로 편성된 조사위는 9일간 전국 교구본사·직영·특별 분담금·관람료 사찰 재정우량사찰 등을 대상으로 재정상태를 파악하며 종무지도 감사도 겸해 실시한다.

본사 사령

위 영 란
송 편집국 취재부장
고 영 배
송 편집국 사진기자
〈9월 28일자〉
오 종 욱
송 조사지료부 기자
〈10월 9일자〉
박 재 완 사진기자
의원면직 〈9월 15일자〉

현대불교 창간 1주년 2大기획

기획 I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 애독자 사은 연속 법회"


◇ 월하스님


◇ 혜암스님


◇ 승찬스님


◇ 원담스님

매회 1백50명 선착순 접수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주년을 맞아 그간 성원해주신 독자님들께 보답하고자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갖습니다. 중요의 계절에 큰스님들의 사자후로 마음의 가난을 벗어던지는 친견 법회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등참을 바랍니다.

△ 1차 : 영축총림 통도사 10월 14일(토) 월하 방장스님 친견
△ 2차 : 해인총림 해인사 10월 28일(토) 혜암 방장스님 친견
△ 3차 : 덕숭총림 수덕사 11월 4일(토) 원담 방장스님 친견
△ 4차 : 조계총림 송광사 11월 18일(토) 승찬 방장스님 친견

※ 각 회차별 당일코스이며 오전 7시 조계사 정문앞에서 출발합니다.

▩ 동참방법 · 접수안내

△ 개인 · 단체등참 가능하며 매회 1백50명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제일은행 계좌(131-10-000570)로 등참금 2만원을 입금하시고 수미산여행사 국내사업부(732-0181~3)로 연락주시면 좌석이 배정, 접수마감은 해당일 3일전.
△책방 '여시아문(737-0695)'에서도 접수받으며 현대불교 편집국(722-4162)에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 지방 불자님은 당일 오후1시까지 해당 총림 대웅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가비 1만원).

기획 II

신행이야기를 찾습니다

11월25일 마감

이시대 불자들의 바른 신행지표를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실리게 되는 신행담 공모에 적극 등참하셔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행수기 공모 요강

△ 공모내용 : 생활속 수행이야기 · 부처님 가르침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등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접수마감 : 95년 11월 25일
△ 접수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722-4162 팩스 : 737-0698
△ 참가대상 : 불자면 누구나 등참 가능
△ 당선작발표 : 현대불교 96년 신년호 지면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 시상내용
- 유마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증단협의회장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본사 사장상 : 상장, 상금
- 특별상 : 상장, 상품
- 응모자전원 : 기념품 증정

HALLA 자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라

33
1962-1995
創立 33周年



地球를 사랑하고 아낍시다

地域環境에 대한 責任을 遂行하는 企業, 漢拏가
올해로 創立 33周年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地球를 보다 맑고, 보다 푸르고,
보다 깨끗하게 가꾸어서 우리 後孫들에게 물려줍시다.

우리 귀여운 後孫들만은 神이 創造하신 참모습 그대로의
大自然을 享有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環境保護를 最優先 課題로 삼고 있는 漢拏는 人間의 무분별한
行爲로 모든 分野에서 각종 廢棄物과 有害物質이 마구 放出되거나
自然이 毁損되어 무참하게 破壞되어가는 이 地球環境을 保護하는
일에 最新 技術과 온갖 精誠을 다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漢拏가 기울이고 있는
보다 快適한 未來社會 建設事業에 同參하십시오.

HALLA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자원 · 한라해운 · 한라콘크리트 · 한라창업투자 · 칼코 · 마이스터 · 한라마이티정보통신 · 한라제지 · 배달학원

사 설

'경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산은 높아서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구에 빗대어 말한다면 민족은 물리적 시간의 길이로서 귀한것이 아니다. 역사속에 문화가 있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확고할 때 비로소 귀함을 내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훌륭한 민족이란 자신의 국토와 역사 문화 사랑이 승화된 자긍심에 이어져 있고 그것을 후손에게 잇게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자각없이 개발하고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국토의 파괴, 문화재의 파손은 자손에 대한 큰 죄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곧잘 문화민족임을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 특히 "잘 살아 보세"의 구호속에 싹스리적인 사고가 일반의 무의식속에 숨어들고 편의성 효력성을 앞세워 하루아침에 귀한 자연환경 문화재를 손상해 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산업화로 결국은 거친 인심과 함께 한강의 오염이 남았다. 이제 우리나라 강의 대부분이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고 외국에서 물을 사서 마셔야 할 형편이 되었다. 실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수값은 수입기름보다 더 비싸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나치게 서둘렀던 산업화의 모순을 통감한다. 공업제품을 수출해서 번 돈으로 식수를 사서 마시는 아이러니앞에 후손들은 이 세대를 어떻게 평할 것인가?

이에 견주어 경주 고속전철 통과문제를 생각해 본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시공 기간의 단축과 건설비용의 절감을 내세우는 경제논리이며 두번째는 민족의 최대 문화유산의 절대 보호의 입장이다. 좀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문화재의 보호가 단순한 산술적인 경제논리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줌을 알 수 있다.

본래 한국의 풍토는 자상하고 규모도 작으며 인간의 접근을 막지 않는다. 고대의 문화재는 이러한 자연에 어울려 직접 인간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것이다. 기계문명의 가능성으로 인간의 마음이 거칠게 손상되고 있을 때, 우리는 고대의 문화재에서 조상의 고운 마음을 느끼며 큰 위안을 받는다. 경주의 귀함은 그러한 인간적인 분위기에 있다. 이러한 고적에 쉽게 접근해서 코카콜라나 마시고 돌아온다면 그 고마움을 느낄수 없다. 관광객은 옛것의 소박함에서 감동을 찾고자 한다. 문화는 민족고유의 원형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산물이며 좀처럼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대상이다.

한편 문명이란 자동차, 기차, 전자제품 등의 편익성 효율성이 높은 산물이며 쉽게 남에게 전달되는 것들이다.

문명의 발달은 고유의 문화에 대한 강한 집착을 일으킨다. 세계는 국제화의 흐름으로 문명이 전해지면서 한편으로 문화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민족적 회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앞으로의 흐름이다. 소수민족의 독립이 계속 늘고 우리나라에서도 명절때 민족이동은 해마다 더해간다. 국제화의 원심력과 원형회귀의 구심력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가는 추세속에서 세계적으로 민족 고유의 문화재는 더욱더 가치를 더해간다. 관광자원의 견지에서도 고유의 문화에 가치가 더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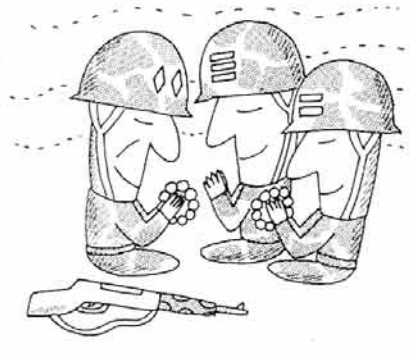
한국인에게는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경주의 유산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주 고속전철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물신숭배, 편의성 도모와 같은 사고와 같은 맥락에 있기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측면에서 고속철도의 경주 우회통과노선을 내놓았던 문체부장관이 최근 포항에서 "노선변경없다"는 재확인과 함께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한것은 행정부가 얼마나 '행정편의'에 젖어 있는가를 대변하는 대목이라고 본다. 이제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도경주를 지키기 위해 고속철도 노선을 변경한다"고 말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 앞에서 차별없이…

열린마당

군승자격 범위 확대

지난달 6일 국방부는 포교원이 질의한 병역법 군승부문 조항 유권해석에 대해 "교육법에 의한 불교대학 이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승려인 경우에도 군종장교요원 선발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승임용자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과 군승단, 각 종단별로 내부규정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편집자 주〉

자격심사제 도입등 효율운용 방안을

원 혜



이번 국방부의 군승요원 자격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일단 군승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군승자격요건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군승충원에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국방부가 금년부터 타종교에 비해 절대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군승을 종교간 형편성에 따라 20여명으로 늘려 군승의 자격요건 확대가 필요했다.

포교원은 이번 국방부의 '군승자격 범위 확대' 통보에 따라 몇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질없는 군승배출을 배제하기위해 일반대학을 졸업한 승려라도 △사교과이상의 졸업자 △출가한지 2년이상인 스님에 한해 군승요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부규정을 군승단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군승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승가대 및 각 승가대의 학인스님에게도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종단에서도 "군승자격을 각종학교 이상의 졸업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승요원 자격범위 확대를 계기로 군포교의 활성을 기대해 본다.

〈조계종 포교부장〉

종단마다 유능한 인력 배출에 힘써야

덕 혜



군승요원 자격을 일반대학의 졸업자로 확대한 국방부 유권해석을 환영한다.

병역법 제53조 3항 군승부문 조항에 따르면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소속 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으로 군승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종단마다 4년제 [illegible]을 졸업한 승려들의 군승 [illegible]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동안 군승자격을 조계종 종립 동국대 불교학과에만 부여하고 있어 다른 종단에서는 군승을 과견할 기회가 없었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조계종에서 다시 계를 받아 군승으로 파견된 경우도 있다. 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진각종도 군승파견에 따른 방안마련을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본 교단은 내년에 개교하는 위덕대학 불교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군승사관후보생을 모집한다.

이처럼 군승후보생이 늘어남에 따라 포교의 활금어장인 군포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종단마다 유능한 군승배출을 위해 교단차원의 지원을 마련해야 하겠다.

〈진각종 홍보부장〉

서로 다른 종지·종풍등 조화대책 필요

한 상 길



군승요원 임용자격범위의 확대는 군승충원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각 종단에 군승요원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각 종단별로 서로 다른 종지·종풍을 어떻게 통합해서 군체계속에 적응시킬 것인가 하는 난점이 뒤따른다.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될 것으로는 의식의 통일문제다.

내년부터 진각종에서 설립하는 위덕대학에서도 군승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등 각 종단의 군승요원 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불교라는 특이성을 감안할 때 군승단의 통일법요집 등을 활용하는 등 대안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교단별 교화방편이나 군승후원 문제 등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기타 구체적인 군승자격요건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후 오는 11월30일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군승단의 발전과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군승단 총무국장〉

시 론

'5·18의 진실'과 '참회'

윤 세 원

〈인천전문대 교수·정치학〉



온 나라가 5.18 특별법 제정 요구와 책임자 기소촉구 운동의 열기로 들끓고 있다. 검찰이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수사 종료 발표 이후, 검찰의 이와같은 결론이 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교수 및 관련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집회·서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9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에 벌어진 대학가의 동맹휴업과 거리시위는 이 운동의 절정을 이루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 사실에 대하여 분노한다. 역사의 왜곡에 대한 분노는 일본이 자행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호도하는 작태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진실을 호도하는 경우, 그것을 획책하는 자는 그가 누구 혹은 어느 민족이냐에 관계없이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5.18은 우리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픈 흔적이다. 때문에 역사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든 책임자를 기소하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5.18은 12.12라는 쿠데타적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져야 하고, 5.18 그 자체와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국가의 존재이유와 관련이 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5.18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는지를 5.18과 국가의 존재이유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인 관점을 상호연계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소수가 무너뜨린 공동체

존로크는 전정치적인 자연상태에서도 자연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 법에 복종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성의 법칙인 자연법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였고 그것은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로 요약 되어진다. 이러한 인간의 자연권은 남에게 침해 당해서도 안되고 양도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존로크의 이러한 자연권 정신은 근대민주주의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 이론적 지주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가기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묘하게도 불교의 초기경전 중에도 국가 혹은 정부의 출현과 기능을 존로크의 주장과 거의 흡사한 논지로 설명하고 있는 경이 있어 매우 흥미롭다. 장부경전의 기세인본경과 아함부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대루탄경이 바로 그러한 경이다. 경에 의하면,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은 게으르면서도 탐욕스러운 소수가 저지른 절도행위에 의하여 무너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번 무너진 공동생활의 질서는 급기야 서로가 비난하고 구타하는 악의 만연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다시 평화로운 질서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전담하여 해결할 누군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통치자 혹은 정부라는 것이다.

반윤리 행위 관행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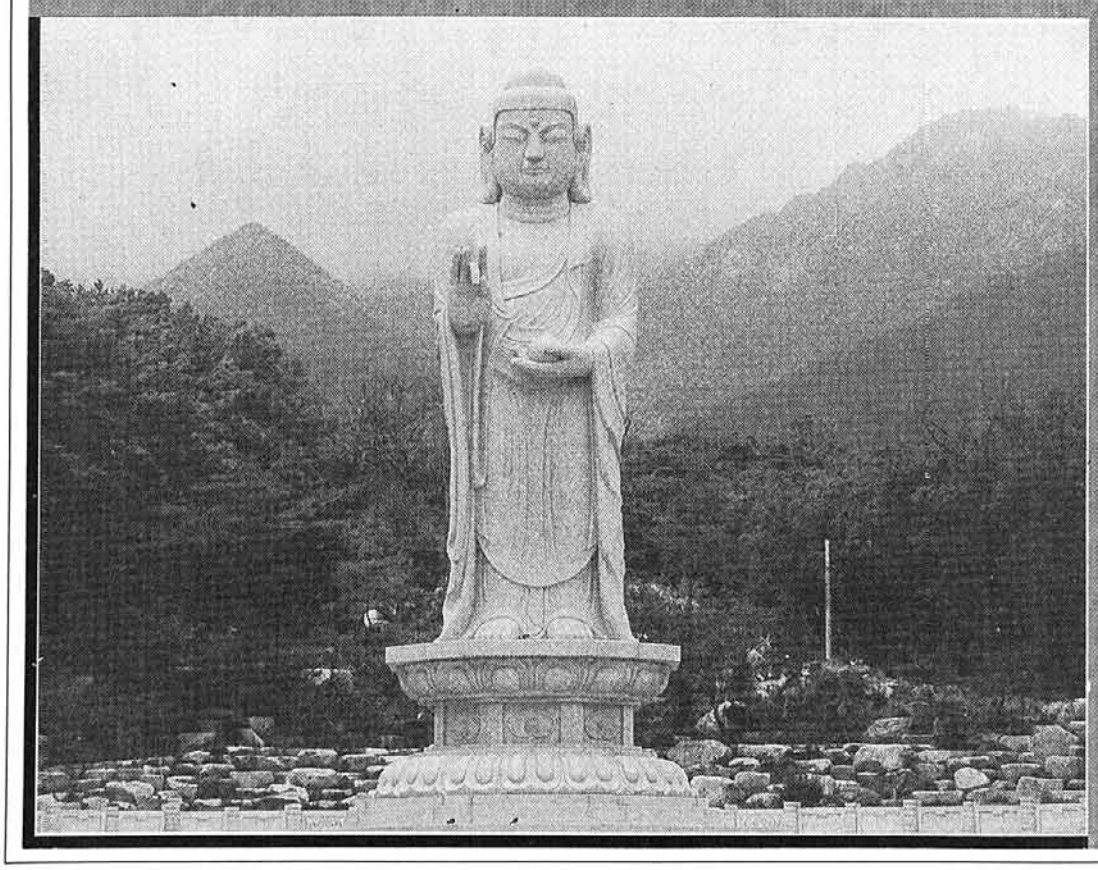
따라서 승가에 적용되는 바라제목차나 재가자가 수지하는 오계에 포함되어 있는 불살생과 불투도의 계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혹은 국가의 기능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불살생은 존로크가 주장하는 생명과 자유라는 자연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불투도는 재산권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수많은 왕과 대신들에게 설해준 국가 혹은 통치자의 일차적인 임무는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5.18은 그 명분에 관계없이 국가의 중추기관에 의하여 그 보호대상인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은 이러한 사건에 관한 사후처리 양식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먼저 5.18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인한 사건이라는 점이고 이러한 사건의 사후처리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는 반검찰적인 자가당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이러한 식의 사후처리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는 반윤리적인 행위가 하나의 관행과 상식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불교도는 이 땅에 다시는 살생의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진상을 밝히는 일에는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요, 관련자들의 참회는 아무리 깊어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을해년 윤팔월 팔공산 동화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 및 일만등 광명 불사



삼보에 귀의하옵고,

만물이 영그는 청명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불자님들의 가정과 이웃에 부처님의 금강가피가 항상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청암벽류의 계곡과 수려한 수림 가운데 봉황의 기상으로 자리잡은 수행과 기도의 청정 대가람 팔공산 동화사에서는 을해년 윤달을 맞이하여 『보살계 수계 법회』와 『일만등 밝히기 광명불사』를 봉행합니다.

삼세의 인연으로 수희동참하시어 선근의 구족성불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보살계 수계 대법회』
- 일시 : 불기 2539년 10월 23일 월요일 (음력 8월 29일) 오전 10시
- 장소 : 동화사 통일대불전
- 三師 : 전계 대화상 – 고산 큰스님 (해원정사 조실)
  갈마 아사리 – 진제 큰스님 (동화사 조실)
  교수 아사리 – 종진 큰스님 (해인사 율원장)
- 七證 : 무공, 벽봉, 원명, 지성, 도원, 태일, 지우 스님
- 동참금 : 삼만원

■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일만등 밝히기 광명불사』
- 1인 1등 : 오천원

■ 문의 및 접수 : 동화사 종무소 ☎ (053) 982-0101~2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 주지 무공 합장

미래 경제체제 바꿀 새 동력

◇태양은 청정한 무공해의 불이다. 아울러 모든 생명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근원적 에너지이기도 하다.



태양에너지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㉘

냉온방 체계·전기 생산까지 가능
생명체 낳아 성장시킨 '자연의 불'

부처님은 상응아함에서 "깟싸빠여, 올바른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올바른 법의 변괴도 존재하지 않는다. 깟싸빠여, 올바른 법의 변괴가 세상에 나타나면 그때에는 올바른 법의 소멸이 초래된다. 깟싸빠여, 불의 요소가 올바른 법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올바른 법을 소멸시키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불의 오염의 책임은 자연의 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불의 사용에 있다. 지구의 온난화는 재생가능하지 않으며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화학연료와 핵에너지의 대량사용에서 근원한다. 화석연료 에너지체계에서 방출되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지구 생물권 역량의 한계는 궁극적으로 석유자원의 한계로 인한 제약보다 훨씬 크리라 예상된다. 거의 60억톤의 탄소가 매년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으며 이 산화탄소는 온실효과 가스로서 대기권에 계속 축적되어 지구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러한 탄소방출량이 줄지 않으면 지구기온의 급격한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핵에너지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의 한계 때문에 결코 불에너지의 주요요소가 될 수 없다. 지난 10년간 핵동력의 확장속도는 둔화되어 세계 곳곳에서 중단 상태에 처해있다. 과학자들은 현존하는 모든 원자로는 40년내에 못쓰게 될 것이며 대부분 핵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연의 불인 태양은 모든 생명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근원적 에너지이다.

앞으로 태양에너지의 직접전환이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체계의 중추역할을 할 것이다. 태양광선은 이용가능한 양이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앞으로 수십년내에 물을 이스라엘, 요르단에서도 이미 태양집광판을 이용하여 가정용 물 25% 내지 65%를 데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1백만개가 넘는 직접식 태양시스템과 25만개가 넘는 간접적 태양열주택이 건설되었다. 개선된 태양집광판으로 물을 200℃까지 덥힐 수 있어 많은 공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태양집광판을 통해 전기생산도 이제는 재래식 방식의 화학연료나 핵에너지를 통한 전량 생산방식에 비추어 경쟁력을 갖출만큼 성장해가고 있다.

그밖에 재생가능한 모든 에너지-풍력, 수력, 생물체에너지-들은 끝없는 유동속에서 태양광선에 의해 계속 재충전 되고 있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지속가능한 자연의 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태양의 불이야말로 태고적부터 모든 생명체를 낳고 키워온 청정한 무공해의 불이다. 인류의 앞날은 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윤달을 앞둔 지난달에는 결혼식을 서둘러 하려는 예비부부들이 붐벼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다.

'윤달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풍속때문에 지난달에는 예식장 수용능력을 25배나 초과하여 교회 성당 할것없이 심각한 예식난을 초래했었다.

반면 결혼식장으로 활용되고있는 사찰은 이런 세태와는 거리가 먼 한산함을 보여줬다.

이는 사찰이 영가를 모시는곳 이상으로 관혼상제의 불교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교계 일각에서는 불자들부터 스스로 불교적 관혼상제를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강도높게 일고있다.

금주의 주제

불교식 관혼상제

최근 몇몇사찰이 사찰공간을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추세와 화장풍습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佛法따라

'차분하고 경건' 장점… 불자부터 실천을

불교적 관혼상제의 정착은 포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각 사찰계도와 불자 개인의 의식변화가 필수요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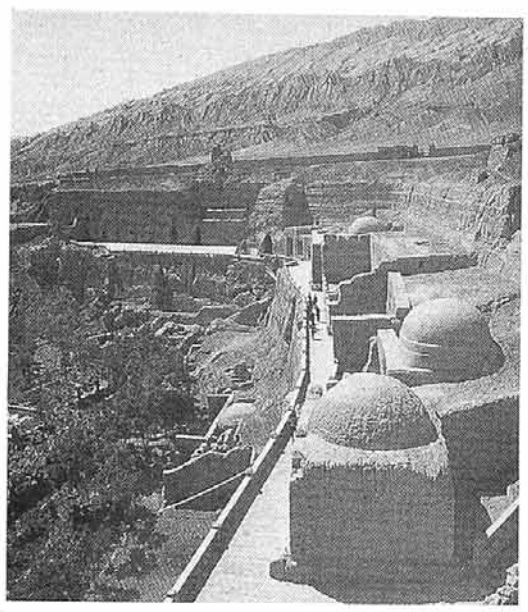
절에서 하는 결혼은 '재혼 할 때 남몰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단순한 생각과 관례가 적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거나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남 봉은사등 결혼식장으로 개방되고 있는 사찰에서의 결혼식은 평생의 반려자를 부처님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므로 해서 경건함이 지속돼 시간이 흘러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결혼식을 사찰에서 올린 한 불자의 의견이다.

또 사찰에서의 결혼식은 촉박한 일반예식장의 예식시간에 비해 시간적 여유를 주고 경비를 절감해주는 장점이 있다.

또 화장제도도 국토의 묘지화가 한 해에 서울의 여의도 크기만큼 잠식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차원으로 권장되고 있음에도 아직은 일반화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래의 미풍양속을 지켜가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불교식 관혼상제를 불자들부터 스스로 앞장서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교식 전통을 프로그램화하고 의식을 현대적으로 바꿔 토론회와 캠페인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중국 돈황지역에 있는 베제크릭천불동.

신행수첩

서화통해 불심 영글게
영남불교대 문화교실

먼 산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 가는 가을에 걸맞는 문화교실이 열린다.

대구 관음사내의 영남불교대학에서는 농전 이재환선생과 청곡 윤의중선생을 초청해 매주 목·토·일 각 1일씩 꽃꽂이, 사군자 및 한국화교실을 개최한다.

소매를 타고 들어오는 서늘한 기운이 사색적이게 하는 이 가을, 한아름의 소국(小菊)에 푹 파묻혀 꽃꽂이를 하고 사군자와 한국화를 통해 군자의 기품과 한국의 얼을 느껴보는 것도 뜻깊은 시간을 만드는 일이리라.

묵향 가득한 법당에서 가을을 느껴보자.

꽃꽂이는 무료이며 사군자와 한국화는 회비가 각 1만원과 2만원. (053)475-3706

혜초스님 발자취를 따라
설법연 실크로드 순례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신라 혜초스님과 당나라 삼장법사. 오로지 정각을 이루겠다는 구도에의 정열을 사막위에서 불태웠던 고승들의 체취를 느껴보자.

설법연구원에서는 오는 11월 1일~5일 4박5일의 일정으로 수많은 인도구법승들의 발자취를 좇아 '실크로드 성지순례'를 떠난다.

고대 동서양 문물교류의 통로였던 실크로드 사막 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전해내려온 불교미술의 보고 돈황석굴 순례를 통해 고대동방문화의 모든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설법연구원서 접수한다. (02)720-0824

가슴 시원한 깨침의 어록
한국불교연 전등록 강의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의 '전등록(轉燈錄)강좌 2'가 개설된다.

〈전등록〉은 경덕(景德)전등록의 준말로 송나라의 도원(道源)스님이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 선종 조사들의 계보 및 법문과 어록을 적은 책.

이 책속에는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깨달음의 체험과 인생의 핵심을 찌르는 법문들이 가득 담겨있다. 뒤에 이것을 본받아 갖가지의 등록(燈錄)이 계속 나왔다.

강의는 10월10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까지 서울 개포동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진행된다. (02)3411-6167~8

사부대중 화합축제 한마당
조계사 육화제, 놀이마당·운동회 열어

전법과 화합의 근본도량으로서 근대한국불교의 1번지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조계사. 조계사는 80여년전 한용운, 만공스님 등에 의해 창건되고 1936년 조선불교 선교양종의 총본산이 되면서 각황사를 현재의 자리로 옮겨 태고사로 고치고 대웅전을 건립했다.

또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조계사로 개칭하고 본격적인 전법과 구도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렇게 2천만 불교도의 귀의처이며 안식처인 조계사(주지 현근스님)는 사부대중의 친목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육화제를 오는 15일 재동국민학교에서 개최한다.

육화(六和)란 인격과 사상 그리고 협동체를 이루고 균등한 복지를 지향하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다.

이번 육화제는 스님은 물론 각 신행단체들이 모두 참석 법회, 놀이마당, 화합운동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한마당을 펼친다. (02)732-2115

호국장병에 불심전하자
무진법장사 위문품 접수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도 그럴만한 경전이 없거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배워보겠다는 동기부여가 없어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군불자들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무진법장사(주지 법장)가 오는 16일 이런 군불자들과 군불자는 아니더라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을 찾아 57사단으로 위문행사를 갖는다.

미래불교의 중흥을 위한 군포교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바로 우리의 아들들임을 생각한다면 이번 행사는 참으로 뜻깊은 위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장스님은 "우리말 법요집이나 불교관련 서적 등이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선물"이라며 "사과 한 개, 떡 한 줌을 들고 가더라도 반가이 맞아줄 우리 아들들에게 많은 불자들의 동참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진법장사는 이번 행사를 후원하고 싶으나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불자들을 위해 각종 위문품을 접수, 국군장병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02)932-2333

알림 1면 칼럼 '목어'는 기사념쳐 쉽니다.

이미 수많은 불자가 지장보살님을 모셔놓고 정진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가정 한분모시기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1. 무불시대의 부처님. 이시대의 부처님이신 대원본존지장보살마하살님을 가정에모셔놓으시고 조석으로 예경하고 마음을 닦지않으시렵니까.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시키는 그날까지 성불하지 않겠노라"는 본원을 세운 대성지장보살을 이미 전국삼만불자가 모셔놓고 정진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혼신의 힘과 심혈을 다하여 제작된 백자(도자기)지장보살존상은 금전적인 가치로는 따질수 없는 소중한 보배이오며 이시대 최고의 예술품이오니 한분씩 모셔놓고 기도하시면 삼세업장이 소멸되고 무량공덕을 필히 얻으실 것이오니 불자님께서도 동참하여 주십시요.
2. 사찰에서도 원불로 모실수 있습니다. (많은 사찰에서 원불로 모셨습니다.)
3.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을 백자에 순금으로 대전신흥사의 묘허큰스님(혜원)께서 친히쓰신 도자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입상 • 25cm×30cm×33cm



지장보살좌상 • 25cm×30cm×33cm



• 45cm×143cm



1. 장식장 포함됩니다.
2. 구입방법 본사 :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38-13 佛音般若 TEL 0345-413-4647~8
   경남지점 : 경남불교용품판매전시장 TEL 0551-95-8911~2
3. 가 격 : 지장보살입상……200,000원
   지장보살좌상……180,000원
   혜연선사발원문……500,000원
   반 야 심 경……300,000원

京畿道 安山市 仙浮洞 1038-13
(佛音般若)
TEL : 0345-413-4647~8

全 斗 漢 合掌



민자 김윤환대표 월하종정스님 예방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지난 2일 통도사 정변전에서 김윤환 민자당 대표위원의 예방을 받고, 종토세 등 불교계 현안에 대해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월하스님은 현재 통도사를 비롯한 대부분 사찰의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증합토지세에 대해, 사찰 종토세 면제는 김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줄 것과 토지실명제에서 사찰명의를 인정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대표는 "내년에는 꼭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월하스님과 김대표의 환담에는 통도사 주지 지은스님, 재무국장 시공스님, 곽정출의원(민자당), 나오명 위원장(민자당 양산지구당)등이 배석했다.



석불사 중창불사 회향및 만등불사

석불사(주지 법운스님) 중창불사 회향및 만등불사 법회가 지난 1일 오전10시 불교TV 사장 태응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일면스님, 전 극 비구니회장 광우스님, 민자당 박명환의원 등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석불사는 지난 90년 대웅전 기공식을 봉행한 후 비로자나 부처님 관세음보살 점안식, 대웅전 부처님 봉불식, 단청 등 중창불사를 해왔다.



국립재활원 법당 삼존불 봉안식

국립재활원 법당(강북구 수유동 재활원 1층) 삼존불 봉불식이 지난달 30일 봉행됐다.

이날 봉불식에는 불교간병인회 회장 정진스님, 중앙승가대교수 보각스님과 재활원 직원불자회, 재활원 장애원불교법우회, 재활병원환자불교도회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재활원 직원불자회는 매월 1·3주 수요일 오후6시에 정기법회를 갖는다.



통일광복 민족회의 학술대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대종교 등 8개 교단과 독립유공자협회로 구성된 통일광복민족회의(의장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통일광복학술회의'를 가졌다. 나웅배통일부 총리가 '북한의 현실과 통일정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변정환경산대총장과 한영우서울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송석구 동국대 총장, 최창규전독립기념관장, 박홍서강대총장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교차로

전일본 불교회 창립법회 참석



홍파(관음종 총무원장)시현(조계종 문화사회부장) 도원(천태종 총무부장)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대표하여 전일본불교회 제36회 창립기념법회에 참석하고 지난 7일 귀국했다.

불교사회복지협 회장 뽑혀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불교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불교개혁 어디까지…' 특강



효림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보광사 주지)은 오는 18일 오후7시 전진상 교육관에서 '불교개혁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특강한다.

광주 '우리절' 개원법회



동봉스님은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178번지에 '우리절'을 개원, 지난 7일 오후4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전화(0347)63-4674~5

영묘전 건립 사업본부 개설



현법스님(영각사 주지)은 지난 5일 영묘전 건립에 따른 사업본부를 개설했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삼원B/D 8층 (02)3443-2782~8

'과학시대 종교역할' 주제 강연



김용정교수(동국대)는 오는 18일 크리스챤아카데미 개원 30주년 기념 학술강연회에서 '과학문명시대의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02)900-3945

48차 미술사 학술발표회



문명대교수(동국대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장)는 지난 7일 교내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영·정조시대의 미술'에 대해 제48회 미술사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은관문화훈장 받아



전수천씨(설치미술가)는 지난 4일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날 오전 문화부장관실에서 시상식을 가진 이 상은 지난 6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 국위를 선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어진 것이다.

영탑공원사업 용역 체결



보광스님(동국대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삼성경제연구소와 '영탑공원사업 타당성 연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전문신문 발전 방향' 세미나



한기호회장(한국전문신문협회)은 지난 3일~4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전문신문 경영인세미나에서 '전문신문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구전문대 김향란 학장 제31회 용신봉사상 수상



김향란 학장(대구전문대)은 지난 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제31회 '용신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학장은 가난한 임산부 4백86명에게 무료조산을 주선하고 나환자돕기, 정신지체자 및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에 헌신해 왔으며, 현재 대구불교신도회장이다.

'경주에 고속철' 상상 할수 없는 일

伊 문화재 안전진단 전문가 **조르지오 크로치** 씨



"석굴암에는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있지만 조각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온도와 습도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불상 방침대 앞 환기구에서 나오는 찬 바람이 불상을 직접 때려 먼지와 미생물로 인한 조각의 변형이 우려되지만 방향만 조금 틀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문화재관리국의 초청으로 내한한 이탈리아의 문화재 안전진단 전문가 조르지오 크로치(59)씨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석굴암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도심통과는 문화유적도시에 미칠 부정적 환경요인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면서 "천년고도에 최첨단의 고속전철이 들어서는 일은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문화재와 기념물을 자연변모된 그 모양 그대로 보존·존중하는 태도를 중요시 한다"는 그는 우리나라 문화재관리의 잘못된 시각을 꼬집었다.

"서울의 보물·명소 한눈에 검색"

문화재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송명호** 씨



서울시청 문화관광국 문화재과에 근무하는 송명호씨(44)는 최근 서울시에 있는 2백10여개의 문화재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완성했다.

'내마음의 보물관리'란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사적 등 각종 문화재를 명칭별·소재구별·형태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고 문화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방법과 주변 명소를 함께 담고 있다.

송씨는 지난 6월부터 퇴근후에 자신이 문화재과에 근무한 4년동안 틈틈이 모아둔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워드작업을 계속해 3개월만에 완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의 명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

송씨는 "앞으로 각급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을 보내주고 조만간 PC통신 자료난에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50-8471

김재경 기자

"노인공양은 불법 실천의 길"

노인급식 관음의 집 기증 **안보현성** 보살



"우리사회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작지만 힘이되고 싶어 무료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길동 노인무료급식소 '관음의 집'을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 기증한 안보현성보살(61세)의 말이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드립니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아래 지난 8월부터 이 지역 노인 1백여명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평소부터 노인을 바로 공양하는 일이 불법을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는 안보살은 "너무 늦게 시작해 오히려 송구스럽다"며 겸손해 하기도.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힘든 점도 많지만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스님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관음의 집을 꾸려나가겠다"는 안보현성보살.

개운사서 30년이 넘는 불심(佛心)을 닦아온 안보살은 노인무료급식과 함께 앞으로 지역의 소년소녀가장도 힘닿는데까지 도울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은〉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 대각불교청년회



◇ 공원을 찾은 노인들에게 무료 국수공양을 올리고 있는 대각불교청년회.

"국수 한그릇에 이웃사랑 담아요"

용두산 공원서 무료급식…재활원서 봉사활동도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한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대단허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수 한 그릇이 뭐 그리 대단하겠소만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워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먹고나면 마음속까지 훈훈해진답니다."

지난달 24일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는 때아닌 국수파티가 벌어졌다. 젊은 직장인들과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2백여명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수연기에 한데 어울려 함박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대각불교청년회(회장 임천)가 매월 넷째주 일요일에 펼치는 용두산 공원 무료 국수공양이 시작된 것이다. 용두산 공원은 부산사람은 물론이고 부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부산의 상징처럼 되다시피한 명소이나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모이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하루에 한끼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나면 번영을 구가하는 도심의 한쪽켠에서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대각불교청년회는 이 일뿐만 아니라 10여년전부터는 천마재활원 자원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체부자유아, 정신박약아들의 보금자리인 천마재활원에서 회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빨래, 주변청소 등인데 최근에는 월별로 생일을 맞은 원생들을 대상으로 생일파티와 디스코 파티 등을 열어 찾아오는 이가 드문 원생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봉사활동 자체는 순수해야 한다고 본다. 특정단체의 목적이나 세력확장을 의한 도구로 활용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임천회장은 회원들의 신앙심 증진에 경전공부는 필수적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체험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강조한다. 그러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동참율도 상당히 높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없어 무료 국수공양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회원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라고 말하는 한 회원은 불교계 제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박병근 기자

봉행 비구·비구니계 수계식

한국 불교계 원로이시고 덕이 높으신 덕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는 불이성 법륜사에서는 금번 11월 5~7일 2박 3일간 비구·비구니계 수계식을 봉행하오니 비구·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스님들은 동참하시어 이 계를 수지하옵기 원하나이다.

일 시 : 1995년 11월 5일 ~ 7일(음력 9월 13일 ~ 15일)
장 소 : 불이성 법륜사 큰법당
대 상 : 삭발 염의한 스님
지 참 물 : 가사·장삼
동 참 비 : 50,000원
접수기간 : 1995년 10월 31일까지
문 의 : ☎ 732-3920, 2710

불이성 법륜사 주지 석혜일 합장

영가 천도 안내문

우리들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부모를 받드는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직접 부모님을 위해 도솔천궁에까지 왕래하시면서 마야부인을 제도시킨 예를 지장경에서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은 윤달이 든 해이고 해서 우리 법륜사에서도 7일간 영가천도를 올릴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어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을 잘 천도시키는 동시에 여러 신도 가정에 이러한 기도로 인하여 무병과 지혜를 얻어 국가가 안녕하고 집안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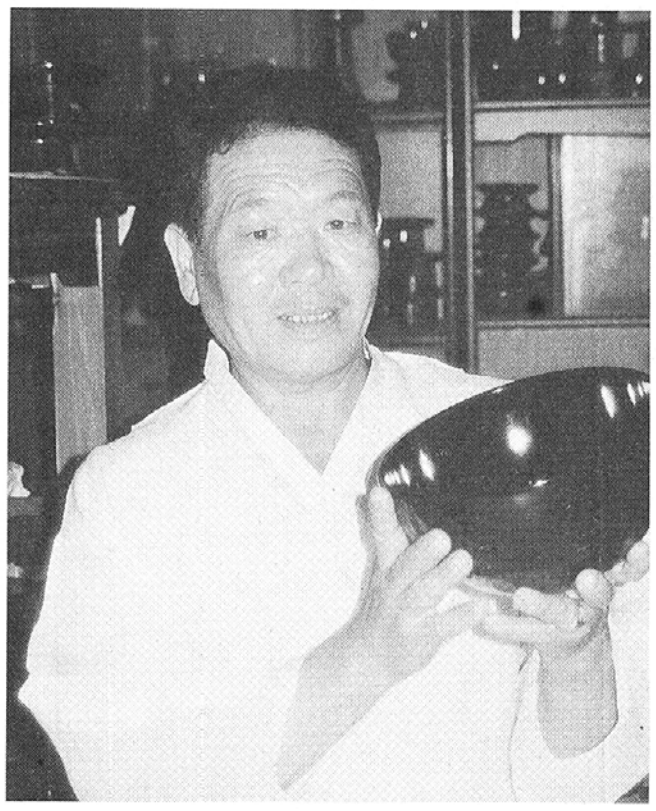
일 시 : 입재일 : 1995년 11월 4일 (음력 9월 12일)
회향일 : 1995년 11월 10일 (음력 9월 18일)
7일간 오전 10시
장 소 : 불이성 법륜사 큰법당
동 참 비 : 50,000원
전 화 : ☎ 732-3920, 2710

불이성 법륜사 주지 석혜일 합장

"나무도 사람도 다 쓰임새 달라"

산문밖의 禪

木器 명인 김을생 씨



나무란게 잘라놓으면 죽어있는듯 보이지만 손으로 다듬다 보면 영락없이 살아있는 물건이야. 바루도 깎고 제기(祭器)도 깎고 그릇도 만들고 하다 보면 저절로 나무랑 대화를 나누게 돼. 다른 재료와 달리 나무로 만든 것은 질감이 좋고, 보면 볼수록, 손때가 타면 탈수록 싫증이 안나고 도리어 정이 붙지.

4대째 목공예 가업

남원 이곳은 원래 목기로 유명한 곳이야.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까지야 목기가 널리 쓰였고, 이곳 지리산 근처는 나무가 풍부하니까 자연 나무그릇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지. 그래서 전문적으로 목기만드는 기술중학교가 이곳에 있었어. 내가 1회 졸업생이라고. 우리 집안이 선비집안이었는데 증조부때 이곳에 터를 잡아 살았지. 할아버지 때부터 목기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어. 아버지(김원달씨)로부터 나 그리고 아들 녀석이 뒤를 잇는다고 하니 4대째 목기와 더불어 살고 있는거야.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뿌듯해. 목공예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도 나라 발전이라고 봐. 특히 전통으로 이어져 내리는 공예기술이야 그게 어디 잠깐잠깐 봐서 되는가. 같이 살아 부대끼며 조석으로 보고 배워야지. 그래서 가업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잘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중학교 마치고 나니까 목기가 사양길에 들었어.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날개 돋친듯 팔리니까 누가 나무그릇을 쳐다나 보나. 목기 만들던 이웃들이 많이 떠나더군. 돈 생각했으면 이 일 지금까지 못했을 거야. 애들 가르칠만큼 벌고 이 일이 좋아서 하다보니 30년이 흐른거지.

이 그릇들 좀 봐. 모양이 단순하게 보여도 보통 손이 많이 가는게 아니야. 나무 고를 때부터 대충 골라 되는 게 아니거든. 나무와 대화를 해 봐야 돼.

이것이 어디에 쓸 건가, 바루를 만들건가 제기 만들 건가, 물병을 만들건가를 미리 알고 나무를 잘라야 하는 거지. 병 만들 나무로 바루 만들면 안되지. 용도별로 선별해야 하는데, 이것은 경험에 의해 쌓여지는 거지. 나무 고르다 보면 사람 쓰임새도 마찬가지같아. 적재적소에 다 쓰임새가 다르거든.

나무를 고른 다음엔 모양을 만드는 초갈이에 들어가지. 나무란게 그냥 말리면 죽어도 안말라. 형태를 만들어 놓고 말려야 잘 마르지. 6개월에서 1년동안 말려야 돼. 그래서 터질 것 다 터지고 난 후 재갈이에 들어가지. 그런 후에 일일이 흠을 잡아내는 곡서과정을 통해 본살처럼 만든다음 칠을 하는 거야. 칠하고 말리고 하는 과정도 7~8번 되풀이 해야 하지. 목기 하나 만드는데만 한 8개월 넘어 걸려. 그런데도 다 만들고 나면 만족이 없지. 사실 목기는 잘하려면 끝이 없어. 대충 칠하거나 꼼꼼하게 하거나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남 본다고 잘하고 안본다고 대충하면 헛일이야"
"돈욕심 내면 일 그르쳐"…기술보다 '사람되라' 강조

그러니 잘 하려면 한이 없지만 속일려고 하면 또 한이 없는게 목기야. 그런데 난 대충대충은 못해. 또 '김을생 제품' 하면 보지 않고도 사가는 이유도 바로 열과 성을 다하기 때문이지. 그래 늘 목기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얘기가 있어. 남이 본다고 잘하고 남이 안본다고 대충대충 하고 그러지 말고, 양심따라 본성따라 하라고 말야. 30년간 해보니 역시 명성이나 복(福)은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게 아니더라구. 남이 보든 안보든 꾸준히 하다보면 다 지은대로 받게되는 거야.

올해 목기부문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어. 열심히 외길을 걸었다고 인정해 준 것 같아 무척 기뻤지.

이 바루좀 봐. 윤이 자르르 흐르지. 목기란 것이 옻칠에 따라 생명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는데, 옻칠 잘된 목기는 해가 갈수록 윤이 나고 빛이 나지. 자연산 옻은 침투력이 강해 목기속으로 파고 들어가 평생을 벗겨지질 않고 썩지 않고 불에 잘 타지도 않아. 또 살균력이 있어.

스님들이 바루에다 공양을 하시잖아. 바루 자체가 살균작용이 있으니 '바루공양'이야말로 정말 좋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

바루야말로 목기중의 목기야. 바루만들 때는 그 어느 것보다 신경이 많이 쓰여. 옛부터 '일발삼의(一鉢三衣)'라 했잖아. 스님들 전재산이 바루와 가사인데 바루야말로 조석으로 대하니 속인들의 '자식'같은 거지. 나무가 덜 말라 바루가 흑시라도 비틀어 진다거나 칠이라도 벗겨지면 그걸 보는 스님들에게 망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망상이란 공부의 훼방꾼이잖아. 그러니 바루 만드는 사람은, 망상이 안들게 철저히 만들 것은 물론 이 바루에다 공양할 때마다 시은(施恩)을 느끼게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해.

전시장 입구에 유훈

바루를 한짐씩 등에 지고 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산길을 오르내린 것이 한 두번이 아니지. 아마 절 수백군데는 다녔을 걸. 그렇게 다니며 공부 잘 하시는 스님들을 많이 만나 뵌 것도 다 큰 복이라 느껴. 선방에 가면 방선시간 전에는 스님을 만나뵐 수 없잖아. 그런 때는 방선시간 기다리며 냇가에 앉아 시조창도 하고 대금도 불고 했지. 그때 싸짊어 지고 다녔던 보자기는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온 아들녀석(연수, 25)이 가업 이으려고 작년부터 목기 배우고 있어. 기술 익히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하기 때문에 멍심보감 떼었고 지금 소학을 직접 가르치고 있지. 돈 많이 버는 것은 집안 망하는 근본이 된다고 돈욕심 내지 말라고 늘 이르지. 마음 가운데 걸림이 없이 자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강조해.

내 그래서 저기 전시장 입구에 비석으로 유훈을 미리 새겨놨어. 이런 내용이야.

"목기의 본 고장에서 목공예를 전승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분야에서 정성을 다하여 사는 것도 즐거운 일이거늘 이후 사람들은 가업이 길이 빛나도록 갈고 닦고 할지어다."

내가 올해 환갑인데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가까운 곳에 토굴을 하나 마련했어. 인생은 전부가 다 중요한 시기지만 말년을 특히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지리산이 마주 보이는 곳인데, 마음 깨치는 공부나 열심히 하며 말년을 보내고 싶어.

남원=이경숙 기자



희망의 바다가 썩고 있다니…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㊻

사해(死海)

바다 바다 푸른 바다. 멀리 등대가 보이는 바다. 바다쪽에서 등대를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인다. 귀항하는 안도의 희망이다. 거센 파랑, 풍파, 폭풍에 휩쓸려 난항항진을 하다가 이제 고향 항구바다로 들어오는 기쁨을 무엇으로 비기랴. 그러나 고향바다는 적조, 녹조로 변질되어 갯냄새 가셔지고 구토증 차올라오는 이 썩은 냄새는 어디서 오는가. 옛 바다의 갯비린내는 살냄새처럼 목숨이 살아나는듯 활개 솟구치던 냄새였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핵실험 하느라고 9월5일 무드로아에서 지하해중을 못살게 하였고, 그것이 부족하여 다시 관가투파에서 10월2일 바다밑을 쑤셔놓고 있다.

물어보자. 실험이란 유효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실험은 가능한 것이지만 실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전멸의 재앙을 초래한다면 그것이 무엇에 필요한 실험인가.

한치앞 못보는 '탐욕' 오염 주범

사람은 영민하다고 하지만 과학적 방법에 한해서는 자가당착적인 행위를 자아내는 우행이 아닌가.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목전에 두고도 감행하는 것은 인간적 도덕은 벌써 사라졌고 세계멸망 지구전멸의 아수라군이 된 것이 프랑스의 지성인가 되물어 보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간지각의 부족으로 어마어마한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소리도 앞바다에 좌초한 시 프린스호의 기름유출사고는 가공할 일이다.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어 청정해역이 오염되면 30년의 세월이 지나도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양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이다. 한쪽은 청정해양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방제와 예방을 강구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해양오염을 식은 죽 먹듯이 심심찮게 저지르고 있으니 이해가 난감하다.

거제도 인근 해양인 형제도 주변에 유일호가 74m 깊은 바다속으로 침몰하였다. 무량한 기름을 적재한 상태에서 침잠되었기에 더욱 비극이다.

여기 기세경 세주품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비구들아, 그 끓는 잿물의 비가 내릴 때 광음천의 모든 궁전이 녹아 죄다 없어져서 형상이 없어 작은 티끌이나 그린자라도 알아낼 수가 없이 되느니라. 마치 수(酥)를 불속에 던지면 모두 타 녹아서 형상이 없어 조사하여도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아서 그렇고 그러하여 그 끓는 잿물의 비가 내릴 때에 광음천의 여러 궁전들이 녹는 것도 그와 같아서 알아낼 수 없이 되느니라."

이 경구는 유조선 침몰과 적대적응하는 예화는 아닐지라도 상사한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경전의 글은 그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큰 안목으로 이해하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끓는 잿물이란 무엇인가. 유화성 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화성 세제는 모두가 기름으로 만들어 지는 화학제품이다. 이러한 유화성 화학제품인 잿물이 바다속에 버려진다면 광음천의 궁전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파괴분쇄된다고 한다. 이 말은 바로 시 프린스호에서 쏟아 부은 기름, 유일호에서 오염시키는 기름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육지의 강으로부터 공장폐수, 가정용 하수, 유락시설의 오수가 수치를 헤아릴 수 없는 부영양물로 변이되어 바다로 바다로 내려가지 않는가. 이러한 바다오염의 주범이 녹조, 적조의 현상을 발생하여 바다가 썩어가는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바다물이 썩어가면 바다가 죽고, 바다가 죽으면 바다의 보고가 메말라 버린다.

인간이 이 지경으로 가는 것은 무지의 소치인가 아니면 지금의 사람만이 살면 그만이다고 하는 현실지상주의의 환호성인가. 어김없이 다가온 현시적 고통은 누가 책임지랴. 현실을 사랑할 때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미래에 다가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전멸을 초래하는 무명적 사고방식, 이것을 고쳐가야 한다.

바다밑에서의 핵실험은 가공할 지진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자연은 인력의 행위보다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프랑스, 중국, 미국 그 어느 나라도 핵실험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한국도 유조선 운항을 조심하지 않으면 녹조, 적조, 바다멸살의 인과를 받을 것이다. 광음천의 궁전이 끓는 잿물에 전멸되듯이 과보의 빗살을 비켜 날 수 있으랴.

알려드립니다

금번
桐華寺 金堂禪院에
乙亥年 冬安居 入榜願書를
제출하신 스님들께서는
95년 10월 22일(양력)까지
金堂禪院에 도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추가 榜付는 10월 10일 이후에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佛紀 2539년 9월 25일

大韓佛教 曹溪宗 第九教區本寺
桐華寺住持 無 空 合掌

어·른·과·어·린·이·가·함·께·보·는·책

깨끗한 마음 지혜로운 생활

어린이를 닮은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추천도서

이 책을 통하여
'효'를 강조한
큰스님의 참뜻을
알 수 있다

민족불교의 선각자,
한국불교의 산 증인
강석주 큰스님의 투명한 이야기

부처의 참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마음 깨끗이 하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라. -석주 스님 말씀 중에서-

석주 스님은 지극히 꾸밈없고 소박한 생활로 우리에겐 친근한 할아버지가 되어 잊기 쉬운 '효사상'을 일깨웠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오계'를 지키게 했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에서 '스님 할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큰스님, 늘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를 닮아 사는 스님이다.

조철규 지음 / 신국판 / 각권 204쪽(전 2권)
값 4,500원(1세트 9,000원)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케이스에 담겨 있는 예쁜 책을 가까운 이웃에게 선물합시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우리출판사 Tel. 313-5047 Fax. 393-9696

"불·유교 교류사 밝혀 미래사회 대비"

'韓·日 문화이해' 국제학술회의 일본속 '한국문화 영향' 공동연구도 제기



◇지난 2~3일 동국대서 열린 '한·일문화의 상호이해' 주제의 국제학술회의. 한·일 공통교과서 제작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같은 한자(漢字)문화권에서 불교와 유교라는 사상적 공통분모를 가진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역사적 길을 걷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국사상사학회(회장 김상용)와 일본비교사상학회(회장 小山庙丸)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2~3일 동국대에서 '한·일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한 제문제'란 주제로 95 한국사상사학회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일본측에서 일본비교사상학회 회원학자 20여명이 참석하는 등 양국 중견학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기조강연에서 박성봉 경희대 명예교수는 '사상사에서 본 한일문화의 위상'을 통해 "한·일 양국은 그동안 농경시대에 가장 대표가 되는 佛·儒를 통하여 사상 내용과 전개 교류를 함께 규명함으로써 고금(古今)의 위상과 의의를 찾아 21세기를 전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야마 주마루(小山庙丸) 와세다대 교수도 '한·일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해'란 기조강연에서 "고대 한국문화의 일본문화에 대한 영향을 양국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 공통교과서 제작등 양국관계에 관한 통사를 서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륵신앙에 나타난 한·일의 비교'를 발표한 구모이 쇼젠(雲邦昭善) 大谷대 명예교수는 양국 불교사상·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깊이 관계돼 온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한·일문화를 비교했다. 즉 한국에 있어서의 미륵신앙의 주류는 미륵하생경에 의한 하생(下生)신앙이며 도솔상생(上生)신앙은 부차적이지만 일본은 그 반대라는 것. 미륵의 하생을 기원하는 하생신앙은 사회와의 긴장관계속에서 자라나지만 도솔의 정토왕생은 번뇌에 싸인 인간의 내면적 자각과 연관된다.

이어 김상현 한국교원대교수는 '원효저술의 일본 유통과 그 의의'에서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일본저술을 중심으로 일본불교사에 끼친 원효 교학의 영향을 조명했다. 김교수는 "일본에서 원효의 저술을 인용한 경우는 8세기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30여명에 달하고, 인용이 확인되는 원효의 저술은 25부 정도"라며 "원효 교학은 각 시대의 학승과 여러 종파에 고루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불교에 있어서의 사원의 사상'을 발표한 마이다 게이가꾸(前田惠學) 愛知學院大 교수는 한·일·스리랑카 사원의 신불습합(神佛習合; 본존불과 토착신들을 함께 수용하는 것) 사상을 비교했다. 또한 최병헌 서울대교수는 '한말 일제불교의 침투와 식민지 불교의 성격'에서 일제의 정토진종 대곡파(大谷派)를 첨병으로 한 종교침략사와 한국불교계의 무기력한 반응을 조명했다.

김재경 기자

국내 첫 국·영문 학술지 창간

'종교교육학 연구' 불교학 국제화 진일보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는 국내최초의 국·영문 혼용 학술지인 〈종교교육학연구(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창간호를 20일경 발간한다.

국내 대학부설연구소 1백여곳과 미 일 유럽 대만 멕시코 등 2백여 곳의 해외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에 배포될 이 학술지는 박선영(동국대)교수의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등 5편의 미발표 논문과 지난 6월24일 열린 창립학술회의 논문 및 토론요지를 수록하고 있다.

박선영교수가 불교를 비롯한 종교교육학의 국제화를 위해 10년전부터 원력을 세우고 올해 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완성한 이 학술지는 불교학계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관련 논문은 △불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2(권은주 동국대교수) △원시불교교육의 방법론적 이념으로서의 漸敎性에 대한 연구(최봉수 동국대강사) △종교적 심리의 공동 원형론과 종교교육:칼 융의 종교론을 중심으로(김용표 동국대강사) 등이다. (02)275-2607

한국禪 원류 '구산선문' 밝힌다

보조사상연, 21~22일 송광사서 학술회의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은 10월21~22일 송광사에서 '한국선의 원류-나말려초 구산선문'을 주제로 제8회 학술회의를 연다.

김영태(동국대)교수 허흥식(정문연)교수, 동국대 교수인 성본스님·현각스님이 '구산선문의 성립과 그 성격에 관하여' '조계종의 기원과 전개' '신라선의 사상적 특성' '낭혜 무념의 무설토론'을 각각 발표한다.

종교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종교학회(회장 길희성)는 11월4일 오후 5시 이화여대 인문관111호에서 '한국종교사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연다.

불교분과에서는 '북종신수의 선'(강해원) '능엄경의 관음신앙'(조용항) 등이 발표된다.

한국불교학 20집

삼론사상 집중 조명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가 20일경 발간하는 김인덕교수 화갑특집 기념호인 〈한국불교학〉 제20집에는 '삼론사상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25편의 논문이 수록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논문집에서 눈길을 끄는 논문은 동국대 김영태 김인덕 교수와 김용표씨(동국대강사)의 '고구려 승랑(僧朗)에 대한 재고찰' '삼론학의 파사현정론(破邪顯正論) 요지' '서구에서 중관학 연구동향: 삼론사상의 현대적 조명' 등 3편.



◇김영태 교수

"중국삼론종 초조 고구려 승랑 확실"

고구려 승랑의 중국불교학상 위치를 밝힌 김영태교수의 논문은 그간 승랑의 행적에 대한 불충분한 사료와 이설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김교수는 "중국삼론종의 초조(初祖)는 승랑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삼론학을 완성한 길장(吉藏)의 직계인 승랑이 남조(南朝)에 와서 삼론을 펼침으로써 소승론인 성실론(成實論)이 사그라들고 삼론학이 크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 김교수는 "중국 특유의 일승(一乘)불교적 교학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된 원인의 하나가 승랑의 학구적 업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인덕 교수

파사현정 수행 다각도 분석

중국 삼론교학이 전개하는 파사(破邪:삿됨을 깨뜨림)와 현정(顯正:정의를 드러냄)의 대상과 내용을 밝힌 김인덕교수는 중론(中論)에 나타난 파사현정과의 비교를 통해 '파사현정 수행'의 확대를 분석했다.

삼론교학은 '파사'의 대상으로 되는 잘못(邪見·오류)을 유부(有部)의 아비달마교학을 넘어 인도와 중국의 외도(外道)가 갖는 철학·사상에서 성실론 및 대승일각의 학설에 이르기까지 네 분야로 찾아내어 비판·부정했다. '현정'을 통해 밝혀지는 옳음(正法)에 대해서도 왜 옳고 어떤 기능·역할을 하며 또 어떻게 말로 설명되어야 하는 지를 밝힐 뿐만아니라 용수보살이야말로 가장 옳은 정사(正師)임을 밝혔다는 것.



◇김용표씨

"서구학계선 삼론학연구 활발"

2백여년에 걸친 서구인들의 불교학연구 가운데 반야·중관학 연구의 역사와 문제점과 전망을 고찰한 김용표씨는 "서구의 중관학계는 동양에서 오래전에 쇠퇴했던 중관학과 삼론학의 학문전통을 동양보다 오히려 활발하게 부흥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사찰의 주련' 기사내려 쉽니다.

삼처전심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문 어느 전적에 이르기를, 선은 불심이요 교는 불화(佛話)라, '불심은 삼처전심 즉 염화미소와 다자탑 앞에서 반자리를 나눈 것, 사라쌍수 아래서 발을 관 밖으로 내보인 것이다' 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김인화·서울 양천구 목2동〉

답 삼처전심이 무슨 도리냐 하면 그게 바로 한마음 도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비록 모양새로는 너와 나가 각각 있지만 근본은 둘이 아니다 라는 법을 전하신 것입니다. 염화미소가 그것이죠. 또 자리를 내주신 것도 삼계가 다 한 도량 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한 자리에서 세상만사가 다 함께 붙어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관 밖으로 발을 내보이신 것 역시 생멸문을 넘어 진여의 자리에선 한 땅, 한 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한마음 깨달으면 도리를 알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모를 것이다, 그것을 방편으로 보여주노라 하신 것입니다. 삼처전심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삼처전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 불자라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인 불성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서 지식으로 삼으려 들면 진정한 공부가 못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만간 지구가 망가질 열이 생기고 생명들이 위태로워지고 이천년대엔 종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야 인간의 탐욕을 경고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인간이 노예로 산다면, 다시말해 마음도리를 모르고서 수억겁 쌓아올린 업식의 노예로 산다면 종말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도리를 안다면 둘이 아닌 까닭에 종말이란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만 있다해도 종말이 아니며 흙만 있다해도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뚱이는 지수화풍 사대가 뭉쳤을 때 사람이라 하고 흩어지면 안 보이니 허무하다 하지만 사대가 다 생멸인데 어찌 없다 할까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한마음도리를 깨우치는 게 이 공부입니다.

영과 불성은 어떻게 다른지요

문 영과 불성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갈효문·광주 북구 운암동〉

답 다르지요.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 모습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 영혼이란 사람들이 제 각각 생각을 내는 그 그릇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은 부증불감, 더 함도 덜 함도 없고 불생불멸,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면서 만유의 근본이 되니 이를 일러 묘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술먹는 날은 참선을 거르는데

문 저는 요즈음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30분씩 참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선할 때는 스님께서 일러주신대로 '주인공을 관'하고 있습니다. 한 1년쯤 그렇게 해왔는데 가끔 술을 먹는 날이면 거르게 됩니다. 제가 실천력이 부족해서 스스로도 걱정입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혁·경기 안산시 목내동〉

답 술을 먹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술을 먹은 사람도 처사님이고 주인공을 관하는 것도 처사님입니다. 그렇게 일체를 주인공이 하는 것이니 마음 편히, 오늘은 걸렀구나 하는 생각에도 걸리지 말고 묵묵히 해나가세요. 이 일 저 일 해야할 일이 있는데 일부러 정해놓은 시간에 꼭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짬짬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단 10분이라도 괜찮으니 자연스럽게 편한 마음으로 하세요. 주인공을 관한다니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 보세요. "주인공 네가 있기에 네가 있다는 증명도 할 수 있다. 네가 있기에 이 모습도 있는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어느 한 순간이라고 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앉고 싶을 때 앉아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망상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대로 참선하라 하셨는데 망상을 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망상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이 천차만별로 벌어진 까닭

문 불성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천차만별로 벌어진 형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영호·부산 북구 감전동〉

답 불성이란 일체 만유의 근본입니다. 이 우주, 이 천지를 떠받치는 불기둥이라고 비유해서 말할 수도 있지요.

부증불감인데 어떻게 천차만별로 벌어지느냐 하시는데 말로 설명하자니 비유를 들어 볼 수 밖에 없군요.

바퀴가 굴러야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퀴가 구르려면 그 축, 심봉이라해도 좋은데, 그 축이 힘을 전달해 주어야 구르지요. 불성은 바퀴를 구르게 하는, 즉 법바퀴를 굴리는 중심축, 심봉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그 모양을 그리면서 아하, 그렇구나 해서는 안됩니다. 비유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 바퀴를 돌리는 동력은 여러분이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내니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빨리 혹은 늦게 가기도 합니다. 나툼이지요. 그러나 심봉은 그 힘을 전달해줄 뿐입니다. 영이니 업식이니 하는 것도 다 이 바퀴도는 이치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공부 하라는 것은 심봉을 깨닫고 법바퀴 구르는 도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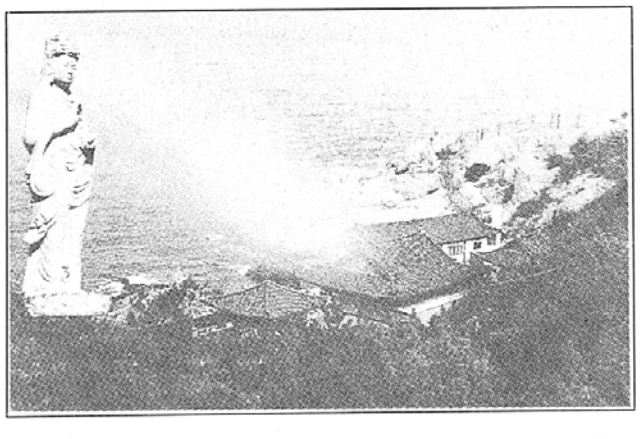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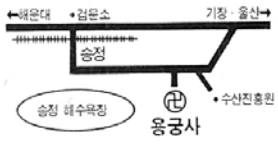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 722-7755

海東佛敎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 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火·水·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통신도 가능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1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741-0495~6 / 팩스:763-4603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6기 佛敎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업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명
■ 교육기간 : 3개월(각 과정)
■ 구비서류 : 본대학 소정워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 1995년 10월 1일 ~ 11월 13일
■ 개강일시 : 1995년 11월 13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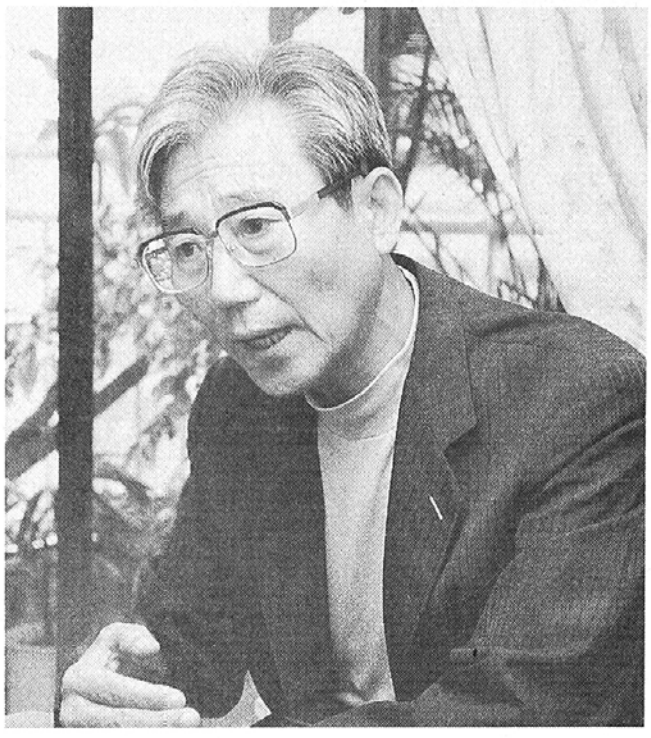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한빌딩 2층
전화:741-0495~6 / 팩스:763-4603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불경 누구나 쉽게 읽어야죠"

한글역경 외길 27년 송 성 수 씨

수요 인터뷰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곳이 담긴 법보(法寶)로 불자들이 귀의해야하는 경전을 보다 쉽고 바르게 알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하는 역경. 포교 도제양성과 함께 불교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역점두어야 할 3대불사로 염불처럼 불리워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하다시피 방치돼온 역경일에 한평생을 바쳐온 송성수(宋成洙·65)거사를 한글날을 맞아 만났다.

-올해로 27년째 역경일만 해오셨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요.

조계종 배출 역경사 1기

▲지난 67년 정훈학교 교관생활을 마치고 무슨 일을 할까 찾던 참이었는데 마침 신문에 실린 조계종 제1기 역경연수생 모집 광고를 보고 응시했지요.

그때 스님 5인과 저를 비롯한 재가 5인등 10명의 연수생이 선발됐고 그 즉시 용주사에 설치된 역경연수원에서 1년6개월동안 합숙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역경원장이신 운허스님을 비롯해 탄허스님 법정스님 월운스님께서 일일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조계종 배출 역경사 1기로 오직 역경일만 전념해오셔서 역경의 산역사이시라고 봅니다. 한국불교 역경불사를 열고 추진하셨던 운허스님등 큰스님 문하에서 공부하시고 또 일하셨는데 그당시 역경생활에 대해 들려주십시요.

▲1964년 역경원이 설립되고 청담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계시면서 역경은 그 나름으로 종단차원의 3대불사의 하나로 관심과 지원이 따랐었습니다. 당시 청담스님은 역경사들이 한군데 모여 서로 의논하고 채우면서 번역하는 것이 좋다며 봉은사를 역경장으로 지정했습니다. 배출된 역경사들이 봉은사에 모여 스님들과 똑같이 사찰생활을 하며 일했습니다. 특히 박대통령·당시 팔만대장경 번역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78년까지 3년여를 신심나게 일했지요. 그때는 받은 고료의 30%를 역경기금으로 모았으니까요. 그리고 역경 연수생 2기로 스님들만 7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보조가 끊기고 교계에서 역경을 등한시하자 대장경 번역불사는 시들해지면서 역경사들도 하나 둘 다른 일을 찾아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 다른 일 할줄 모르는 저 하나만 남게된 셈이지요.

-역경인의 자세와 역경의 원칙이랄까요 그 지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운허스님께서 공사석간에 늘 말씀하시는 당신 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경일을 해야한다면서 앞장서 이끌고 있으니 주위에서 "운허 지가 뭐를 안다고 역경합네 해?"하는 소리도 있더랍니다. 그러면 스님은 "다 아는 사람이 안하고 있으니 내라도 해야지. 그리고 설사 잘못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것이 한국 중생들에게 더 나으니 내가 한다"고 답하신답니다. 그래서 역경연수생이던 우리들에게도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단지 부처님 가르침인 불경이 중국말로 보존돼와 한국 중생들은 읽을 수가 없으니 역경이야말로 시급한 과제이며 일차 직역한 한글대장경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지요. 따라서 역경원 설립이후 첫 사업이 한글대장경 250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7년을 전업 역경사로 살아오셨는데 하신 일의 양도 엄청나리라 짐작됩니다. 그 양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작업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운허스님때 시작한 한글대장경 일만 해왔습니다. 오랜 세월이라 기억이 희미한데… 지금까지 60여권정도 역경했을까요. 모두 다 쉽지않은 일이었지만 〈종경록〉〈유가사시론〉〈경율이상〉을 번역할 때 특히 보람이 컸습니다.

-거사님은 두문불출 일만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하루일과가 궁금합니다.

▲역경연수를 마치고 이후 줄곧 25년여를 절에서 살았습니다. 불암사에서 2년 봉은사에서 23년… 가족들과는 주말에 만났지요. 절에서의 생활은 절규칙대로였고 이제 1년남짓 집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4시에 일어나 30분정도 아미타염불을 합니다. 그후 2시간동안 번역일하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을 더 일하지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날 번역할 내용 전체를 두번 이상 통독합니다.

-역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는데 어려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재원마련 전블자 동참을

▲세상사 모두 어려움이지만 역경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가족을 편히 부양하지 못한 점이 마음 아픕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주위에서 '능력이 없어서' 이일을 떠나지 못하는 것 처럼 얘기할 때는 분개심까지 들었지요. 또한 언제나 혼자였던 외로움도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실 40대 후반에는 그만둘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묘하더군요. 다른 일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해결이 안됐고, 그 반면 어느땐가 스카웃제안이 있었지만 그때는 결코 떠나기 싫더군요. 결국 역경은 제 업(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광사에서 출가생활을 5년정도 했습니다. 군입대후 환속했습니다만, 부처님 시은도 입었고 수행도 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역경일은 참으로 복받은 직업이지요.

-역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요?

▲늘 제기되는 얘기입니다만 역시 재원의 확보입니다. 물론 전문역경사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마련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경사업에는 무엇보다 스님들이 앞장서 참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불상조성, 탑·법당건립만이 불사라는 신도들의 의식도 달라져야겠구요. 그러나 이제 교계의 뜻있는 스님 신도들이 모여 후원회도 결성하는 등 활발한 관심과 지원을 보이고 있으니 역경불사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역경을 천직으로 알고 수행삼아 살아오신 거사님의 외길삶이 오늘 한글날을 맞아 더욱 귀하게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위영란 부장

대장경 60여권 번역…"역경 천직으로 알고 살아"

탑·불상·법당 조성만이 불사라는 인식 바꿔야

나의 수행일기

김양일 〈방송인〉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전쯤 중학생시절. 부처님 오신날에 그저 부처님밖에 모르시는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나는 인천에서 뱃길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자그만 암자같은 절을 찾은 일이 있다. 그때 집안의 어른들은 한결같이 내가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만을 바라며 매월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이면 어김없이 절을 찾아 부처님께 축원을 지성으로 드리셨던 것이다.

그날 그 절의 젊은스님은 대충 다음과 같은 설법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자신과 같은 수행불자가 우러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큰 스님들의 경우 대개 일정의 오랜기간을 목표로 댕그머니 떨어진 작은 승방에서 오직 벽만을 바라보며 기도에만 열중한다. 이른바 면벽수행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한 3년쯤 그런 수행을 하고나면 자신이 기도하는 방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웬만한 일쯤은 보지 않고도 다 알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정진하면 천리밖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천리밖의 물체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이걸 이름해서 千里通이요 千里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더욱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慧眼이라고 했다. 이쯤되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 실예로 임진왜란 때의 명승 사명당대사와 서산대사를 들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면벽수행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고, 불공을 마치고 돌아온 식구들은 좁은 집에 서지만 각기 한 공간씩을 차지하고 각자 그 면벽수행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후 이런 정성이 부처님을 감읍시켰음인지 나는 일류학교를 거쳐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일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입사원 연수교육시간에 들려준 어느 심리학교수의 강의 내용에 깜짝 놀랐다. 중학시절 그 스님이 들려주던 그 얘기가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연유로 이후 나는 후배들에게 또는 어려운 일에 처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비법으로 이 면벽수행을 이용하기도 했다. 요컨대 자신이 목표로 삼는 일만을 오직 생각하고 그밖의 다른데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신념은 내가 약관 24세에 출발한 방송인으로 30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남는 묘약으로 통나무토막 쓰러지듯 병석에 누운 91년까지 작용하였다.

그후 4년동안의 병석에서도 나는 그 면벽수행을 통해 또 많은 걸 배우게 되었는데 내 자신이 설정한 그 비법속에서 오직 내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라는 대목만 신경썼을 뿐 주위의 잡스런 욕심에서 눈을 돌리라는 대목에는 까맣게 외면했던 나를 발견하고는 내 큰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 나는 자기부정의 반성과 자기긍정의 자각을 반복하는 면벽수행 4년을 거쳐 다시 '큰 바위 얼굴'에 도전하고 있고 '중생의 깨우침'을 위한 대열에 서 있는 것이기에 至高至純함을 지니고자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육신으로나마 텅빈 한쪽 벽면을 향해 어설프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아마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래도 끝내 해안의 경지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겠지마는 한가닥 기대 또한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은 저세상에서 여전히 무릎꿇고 앉아계실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80노구에도 쉬지않고 무릎꿇고 계신 어머니의 축원과 병든 몸결을 지키는 아내의 축원이 있기 때문이요, 지금은 백발이 되었을 그때 그 스님의 발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욕심이 병을 불러…다시 면벽

병석에 누워 '마음 다스리기' 공부로 병 이겨

경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信心이 돈독한 佛子로서 악간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 국씨전영양소 사업에 동참할 한분을 초빙합니다. Mr. 박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평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정 우 무 역
전화:(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1〉

道安法師 遺誡九章 (도안법사 유계구장) ②

自獲荒流 道法遂替 新學之人 未體法則
자획황류 도법수체 신학지인 미체법칙
着邪棄正 妄其眞實
착사기정 망기진실
以小黠爲智 以小恭爲足
이소힐 위지 이소공 위족
포食終日 無所用心 退自推觀 良亦可悲
포식종일 무소용심 퇴자추관 량역가비

(그러나) 거칠고 황당한 무리들을 거느리고 부터 도법이 쇠퇴하기에 이르렀으니 새로 배우는 이는 법을 체달하지 못한지라
삿된 길에 집착하고 바른 길을 버려서 진실됨을 까마득히 잊고서는 작은 꾀로써 지혜로 삼으며 작은 공경으로써 족하다 하여 종일토록 제 배를 불리되 도에는 마음내는 바가 없으니
(한걸음) 물러서서 제 자신을 되돌아 볼진대 실로 슬픈 일이로다.

計今出家 或有年歲 經業未通 文字不決
계금출가 혹유년세 경업미통 문자불결
徒虛一世 無所成名 如此之事 可不深思
도상일세 무소성명 여차지사 가불심사
無常之限 非旦卽夕 三途苦痛 無强無弱
무상지한 비단즉석 삼도고통 무강무약
師徒義深 故以伸示 有情之流 可爲永誡
사도의심 고이신시 유정지류 가위영계

그 첫째, 그대가 이미 출가했으니 영영 소생(부모)을 어긴지라
머리 깎아 용모바꾸고 법복을 입어 모양도 달라졌다.
부모를 떠나던 날 상하가 눈물을 흘렸거늘 (그럼에도)사랑을 베고 도를 숭상하니 뜻이 하늘을 능가했도다.
마땅히 이 뜻을 존중하여 불법을 닦아 밝힐 것이거늘 어찌 도에 무심하여 짐짓 색성(오욕락)에 머물며
한가히 나날을 마쳐 공부를 이루지 않는가. 덕행은 날로 줄고 더러움은 쌓여 마침내 가득 차니
스승과 벗에 부끄럽고 부끄러우매 범속에 업신여기는 바로다.
이같은 출가는 다만 제 스스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제 힘써 가르치노니 오로지 정진할지어다.

其二曰, 咄已出家 棄俗辭君
기이왈 경이출가 기속사군
應自誨勵 志果弗雲 財色不顧 與世不群
응자회려 지과청운 재색불고 여세불군
金玉不貴 惟道爲珍 約己守節 甘苦樂貧
금옥불귀 유도위진 약기수절 감고락빈
進德自度 又能度人 如何放蕩 趨走風塵
진덕자도 우능도인 여하개조 추주풍진
坐不暖席 馳騁東西 勞如倡役 縣官所牽
좌불난석 치무동서 극여요역 현관소견

"세속과 무리짓지 말고 도를 보배삼아 절도를 지키고 고난과 가난 즐겨해야"

이제 출가한 때를 셈해보니 혹 여러해를 지냈으되 도리공부에 통하지도 못하고 문자로도 결단치 못하매
한 세상 헛되이 보내 이름조차 이룬게 없으니 이같은 일을 깊이 생각해야 단 하지 않겠는가.
덧없는 한이 아침 아니면 곧 저녁이라(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라) 삼악도의 고통은 더함도 덜함도 없으리라(지은대로 받으리라) 스승과 제자의 의리란 깊은 까닭에 공부길을 써서 밝히노니
뜻있는 사람에겐 가히 오래두고 경계하는 말이 될 것이다.

經道不通 戒德不全 朋友虛弄 同學棄捐
경도불통 계덕부전 붕우치롱 동학기연
如是出家 徒喪天年 今故誨勵 宜各自憐
여시출가 도상천년 금고회려 의각자련

其一曰, 咄已出家 永違所生
기일왈, 경이출가 영위소생
削髮毁容 法服加形
삭발훼용 법복가형
辭親之日 上下涕零 割愛崇道 意凌太淸
사친지일 상하체영 할애숭도 의릉태청
當遵此志 經道修明 如何無心 故存色聲
당준차지 경도수명 여하무심 고존색성
悠悠晷日 經業不成 德行日損 穢積逐盈
유유경일 경업불성 덕행일손 예적수영
師友慙恥 凡俗所輕
사우참치 범속소경
如是出家 徒喪厚名 今故誨勵 宜當專精
여시출가 도자욕명 금고회려 의당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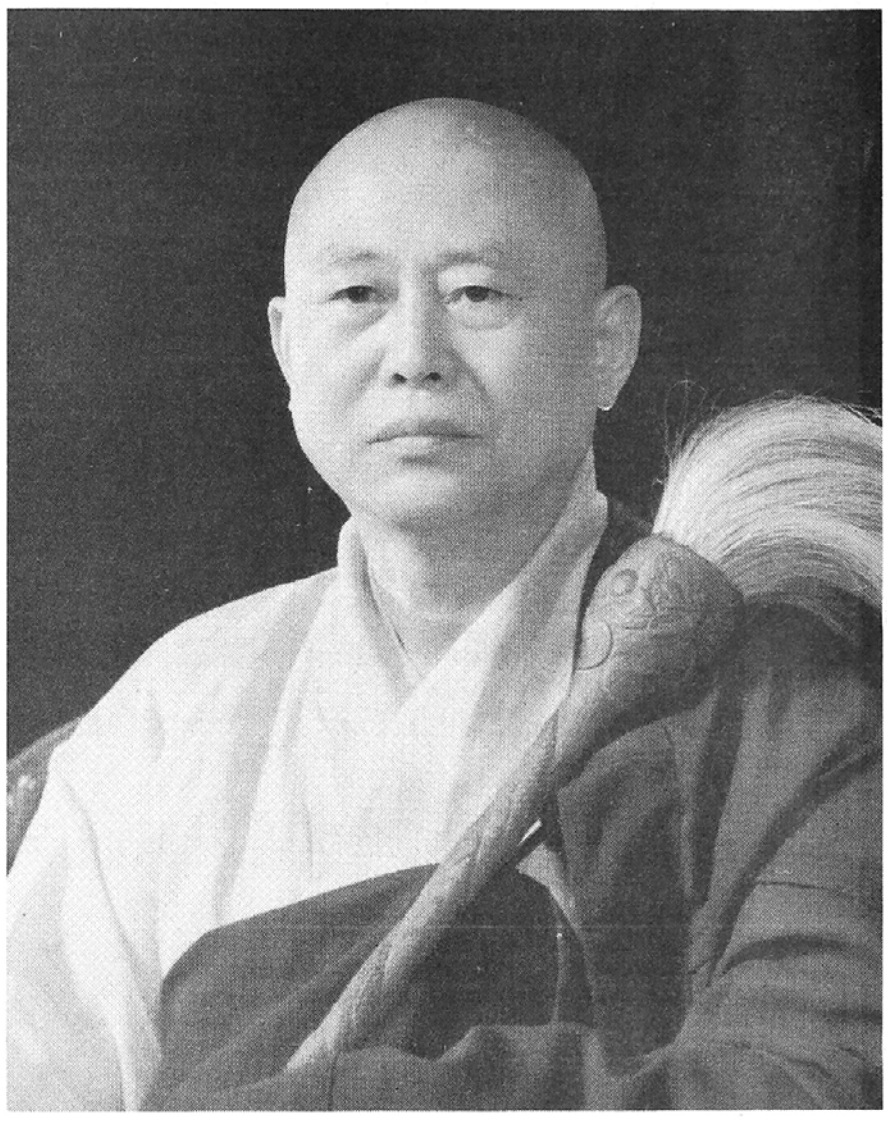
그 둘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세속을 버리고 임금(나라 일)을 마다한 것이다.
마땅히 스스로 꾸짖으며 힘써 뜻이 푸른 하늘같고 재물과 색을 돌아보지 않으며 세속과 더불어 무리 짓지 말라. 금옥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오로지 도를 보배로 삼아 몸을 검약하게, 절도를 지키고 고난을 달게 받아 가난을 즐겨하며 덕에 나아가 스스로를 제도하고 또 남도 제도해야 한다. (그러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지조를 바꾸어 풍진세상에 이리저리 날뛰며 앉은 자리 덥히지 않고 (좌정하지 못하고) 동서로 치닫기를 심하기가 마치 부역으로 관청에 끌려간 것 같이 하니
마음공부에도 통하지 못하고 계율과 덕행에도 온전치 못해 벗들이 비웃고 도반이 버리고 떠나게 하는가.
이같은 출가는 단지 천명만 잃게 할 뿐이니 이제 짐짓 꾸짖어 가르치노라.
각자는 마땅히 스스로를 가련케 여길지어다.

龍眼

★ 지상법석

"우주만물은 나와 인연

천운스님 〈대둔사 주지〉



악력
- 1932년 전북 고창 生
- 47년 월정사에서 지암스님 은사로 득도
- 71년부터 전남 광주일원에서 포교앞장
- 〈뵈서 행하는 길〉 등 저서와 수상록 법어집 다수

화엄경은 부처님 당신이 깨친후 마음 눈으로 보신것을 경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치지 않으면 절대로 못보는 세계가 화엄경 세계 입니다.
그러므로 깨침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엄경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요지를 말해봐라 할 때 몇분이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깨침의 지혜와 자비'입니다. 깨침의 지혜로 보면 이세상의 모든 자리에는 인간의 마음이 일체를 요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상대한 것을 보면 나보고는 '인' 너보고는 '연'이라 합니다. 인연이란 상대했기에 인연설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우주를 봤을 때 실다운 모습은 나와 인연 안된 것이 없다는 것 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주위가 괴로운데 나만 행복할 수 없고 연을 따져보면 모두 친적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사는 마음은 현실극락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깨침의 길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깨쳤다는 분은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의 '여래광명각품(如來光明覺品)' 내용입니다. 깨친분은 광명이 모든 세포에서 나

"착한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도 착하게 행동하면서
남도 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만 착하고 남이 악하면
세상은 악의 세계가 됩니다"

온 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그 빛을 보고 깨침을 얻으라는 제시입니다.
부처님은 발바닥으로 광명을 비추는데 삼천 대천 백억세계를 비췄답니다.
부처님께서 빛을 비추면서 구제할 대상이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사람과 화엄경이라는 법과 사람들이라는 비유법을 통해 설명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둔수보살부터 각수보살 제수보살 보련보살 공덕주보살등 여러보살,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는 형상화로 설명하여 중생에게 정확히 이해하라는 뜻 입니다.
부처님이 세계를 연출하셨으니까 중생들은 문수보살의 신통력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자상한 마음의 표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래광명각품'의 뜻 입니다. 보고 깨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깨쳐야 되지만 자기만 깨치면 절대 안됩니다. 깨쳤으면 반드시 모르는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를 일러 보살도의 실천이라 하지요.
자기만 깨치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 도움이 안됩니다.
다시말해서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도 착하게 행동하면서 남도 착하도록 하는 것이지 나만 착한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많이하면 그 세상은 악의 세계일 뿐입니다. 현실지옥 이지요. 착한 사람이 많아야 악한사람이 적어서 세상 살기가 좋은 이치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착해야하고 착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불교의 이치 입니다.
그러면 착함은 얼마만큼 올라가야 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부처님 경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착함의 경지에 올라가면 저절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중생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지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이가 정각을 보되 해탈하여 누가 없고 온세상에 안착하면 도안이 아니다' 이말은 어떤사람이 부처를 이루어 해탈하고 성신이 됐을때 그 사람이 세간에 착심이 없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도인의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불도를 믿으면 다른 사람도 믿게 하는것이 불자와 불심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같이 행을 했던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수많은 고승 대덕들이 훌륭하였지만 신라승 교각스님이 그 분이지요.
신라 경순왕의 조카였던 교각스님은 출가하여 도를 깨달은뒤 지장신앙을 펴고자 24세에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서쪽 안위성 구화산을 수행처로 정하고 자리를 잡아야겠는데 그 땅이 민씨일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민씨를 찾아가 "가사를 덮을 정도만 땅을 주면 수행할 공간이 충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씨가 "그정도 못주겠느냐며 좋은 곳 어디에나 가사를 펴보시라"고 말했습니다.
교각스님은 제일높은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서 "이만큼만 주십시요"하며 가사를 펴는데 민씨가 "예"하자 가사가 구화산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민씨의 큰 아들이 놀라 그자리에서 출가했는데 도명이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기념

4대 방장 큰스님 친견법회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창간 1주년을 맞아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한 정법포교의 일환으로 수미산 여행사와 협찬, 4대 총림을 순례하며 방장 큰스님의 사자후를 듣는 특별법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사오니 이번 특별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명에서 벗어나는 복연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1회 : 1995년 10월 14일 영축총림 통도사 월하 방장 큰스님
- 2회 : 1995년 10월 28일 해인총림 해인사 혜암 방장 큰스님
- 3회 : 1995년 11월 4일 덕숭총림 수덕사 원담 방장 큰스님
- 4회 : 1995년 11월 18일 조계총림 송광사 승찬 방장 큰스님

출발일시 : 매회마다 오전 7시에 조계사 앞에서 출발 ※ 최신형 전세버스 다량 보유
동참회비 : 1인당 2만원(매회 출발 4일 전까지 제일은행 131-10-000570 수미산여행사로 입금후 예약)
동참인원 : 매회마다 선착순 150명 마감
예약전화 : 02) 732-0181~3 ●담당:조미경 대리·정미순

불교성지순례전문 수미산 여행사
국외여행업 등록 제 358호
국내여행업 등록 제 21-3호

수련원 양도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山水가 완벽함.
대형뻐스가 마당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이 되어있고 수련원 및 노후복지시설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현재 신도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고시생을 위한 방 21개와 일반 수양객을 위한 최신 현대시설을갖춘 17개의 방과 주지실 20평을 제외한 식당 및 일반불자를 위한 80평과 법당 130평의 건축물이 있음.

자세한 내력
■부 지 : 1만평
■건축물 : 법당 ➡ 130평
식당칸 ➡ 80평
요사 ➡ 140평
방 ➡ 50개

●참고 : 부동산 중개인 불필요
소요 당사자 연락바람

연락처 : 02) 233-2500

지 상 법 석

더불어 사는 마음 극락"

"자기만 깨우치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깨쳤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지혜없으면 선행 불가능…"자기잘못 남 탓 말아야"

아집·물질 집착하다보면 인성 잃고 싸움 휘말려

라는 상좌이며 아버지인 민씨도 뒤에 출가하여 무독기왕이되었습니다. 두 부자가 스님이 됐지만 아들이 사형이고 아버지가 사제인 사형사제지간 이었습니다.

그때당시 교각스님의 명성은 중국전체를 휩쓸고 신라에까지 자자했습니다. 수행자들과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절간이 9백9십채나 됐다고 합니다.

수행자들이 너무많아 식량난에 시달리자 교각스님은 산자락 어귀로가서 땅을 파보라고 하니 하얀 흙이 나왔습니다. '금강토'라 하는데 쌀가루와 섞어서 국수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교각스님은 불법을 펴고자 중국에까지 건너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불법을 하는데 모두 미친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요즘 사람들이 인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부다 '편안하게 살자' '돈만 벌면 된다' 하는 생각만하니 옆사람이 죽는지 굶은 사람이 있는지 병자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식이나 손자가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3대도 못가서 집안이 폭삭해버리죠.

우리 인간은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는 절대 허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간에 많은 분쟁이 있는데 성불을 하여 가만히 안주해 버리면 정각자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주인공아 정신차리렸다" "예"하고 정신을 차려서 수행을 했답니다.'

이세상에서 그렇게 좋다는 것이나 다정한 것이나 좋은 물건이나 궁극적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친구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도 몇번 안만나면 변해버려요. 또 물질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세간의 인연은 끝나버리지요.

부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무슨말을 하든간에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듣는 지혜가 없으면 바람부는대로 실버들 움직이듯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신

면 답답하지요.

우리 자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울과 같이 항상 마음을 닦아내야 합니다. 수행으로 더러운 때를 닦아내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여러분도 부처님 입니다. 다만 깨치고 깨치지 못하고의 백지장 한장의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자세로 살며 한칸 한칸 사다리 올라가듯이 깨침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에도 법보에도 그 마음이 평등하여 두 생각이 안 생기는 경지가 되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다 법보다 하는 그 마음이 항상 평등해서 차별심이 안 생기는 경지가 되면 부처님 경지의 마음을 저절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처님과 자기자신의 몸을 보고 평등안에 머무르면 머물것도 들을 것도 없이 번뇌는 영원히 만나지 않는 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처님 지혜로 회향하는 마음을 내면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도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큰 인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있고 살고 생각

펴신것이지요.

이처럼 나는 성불하지 못해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성불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원을 받들어 중생 제도의 삶을 살았던 스님이 교각스님 이지요.

화엄경은 부처님 자신이 깨쳐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았던 것을 형상화한 것 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을 화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엄경을 보면 부처님은 우리의 존재성을 일깨워주는데 의미가 있고 문수보살은 지혜를 갖추는 수행법을 인식시켜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지혜를 위해 문수보살이 항상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화엄경을 보면 문수보살로부터 시작해서 보현보살에서 끝난다고 하는 말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없으면 착한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입니다.

대개 착심이 없어서 맹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불할 수 없습니다.

또 물질에만 치우치면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보고 그런 아집에 집착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80%이상입니다. 자기는 안미쳤다고

부처님께선 체와 모양이 없는 줄을 자세히 알고 세상은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변화한다는 진리를 말씀 하셨습니다.

한살에서 1백살까지 사진을 찍어놨다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해마다 사진을 보면 제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물건도 언젠가는 깨져서 모양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물질 하나도 작년에 본것과 올해에 본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자리에 있지 않으니 허무합니다. 있어야할 사람도 보여야 되는데 안보이거든요.

이 세상은 시간적으로 전부가 무상하고 공간적으로는 전부가 허무하지요. 그런가하면 물건 하나를 놓고 봐도 내것이라고 해봐야 저녁에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면 내것이 아닙니다. 내것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자식이 와서 달라면 안줄 수가 없어요. 이세상에 내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동체로 쓰는 공유물인 것 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스님은 그 마음이 욕심으로 되찾아 갈려고 하면 혼자 앉아서

> "참는 힘이 없는 사람은
> 아귀나 지옥에 떨어지기 쉽고
> 인욕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은
> 거울에 묻은 때를 닦는 일과 같아"

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명이 있기때문에 내 생각과 내 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내 수행은 신 구 의 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몸도 입도 생각도 주의해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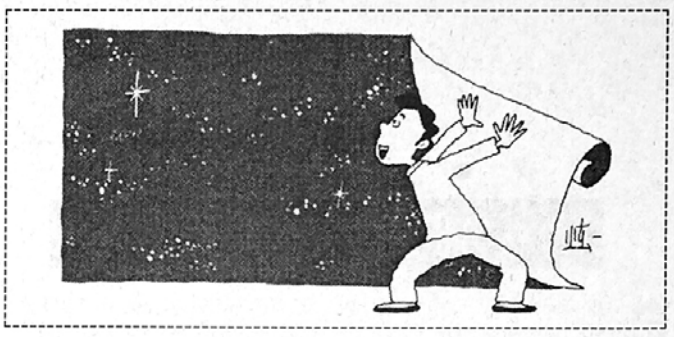
사람은 나쁜쪽으로 가기는 쉬워도 좋은 쪽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수행이란 인욕입니다. 참는 겁니다. 참는 힘이 없는 사람은 아귀나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거울에 때가 끼면 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닦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보면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이치 즉 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주인공의 입장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위없는 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무량한 주인공이 모든 도를 알고 무량해서 모든 상대하는 것을 알게되면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모든것이 내것이요 내책임이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42

양 형 진

幻影의 밤하늘 I

별빛은 수억광년전에 내뿜은 과거 잔영

불법은 현상 배후에 존재하는 궁극원리

밤하늘은 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똑 같은 밤하늘을 보는 것이지만 사람마다 그리는 세계는 저마다 다르다.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제 그렸던 세계가 다르고 오늘 그리는 세계가 다르다. 사실은 잠시 전에 그렸던 세계도 지금 그리고 있는 세계와는 다르다. 같은 대상을 놓고도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는 밤하늘의 별만이 아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 즉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오온(五蘊) 혹은 오음(五陰) 모두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있는 것 이상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유능한 화가와 같이 갖가지의 오음을 그려낸다(心如工畵師 畵種種五陰)"고 하였으며,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心淨卽國土淨)"고 하였다. 마음의 문제를 잠시 덮어두고 마음의 작용이 전혀 없는 사진기같은 것이 찍는 밤하늘은 어떨까를 생각하여 보자. 사진에 나타나는 영상은 과연 지금 이 순간의 우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현재의 기술로는 100억 광년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관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영역 안에는 1000억개 정도의 은하가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령 50억 광년의 거리만큼 떨어진 어느 은하에서 초신성이 폭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50억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알 수 있다. 지금의 우리가 그 사건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란 원리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 그 반지름이 5만광년 정도되는 우리의 은하 안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여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우리 은하의 반대 쪽에 위치한 별에서 오는 빛은 거의 10만년 전에 그 별을 떠난 것이다. 우주적 시간의 규모에서 볼 때 10만년이란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에 그 별은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 맞다면 빛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므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그 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밤하늘을 바라본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이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다른 시간의 사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 중첩되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밤하늘에는 몇초 전에 달에서 출발한 빛도 있지만 10여만년전 우리 은하의 반대편에서 떠난 빛도 있고, 100억년의 긴 여행을 마치고 지금 막 지구에 도착한 아주 먼 은하에서 온 빛도 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이란 오직 개개의 다른 별들이 내뿜는 과거의 영상, 과거의 잔영일 뿐이다. 그건 우리 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며, 관측 기술이 덜 발달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리 훌륭하고 관측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주의 구조상 그럴 수 밖에 없다. 철학자 야스퍼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가해진 어

사진기같은 것이 찍는 밤하늘은 어떨까를 생각하여 보자. 사진에 나타나는 영상은 과연 지금 이 순간의 우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현재의 기술로는 100억 광년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관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영역 안에는 1000억개 정도의 은하가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령 50억 광년의 거리만큼 떨어진 어느 은하에서 초신성이 폭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50억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알 수 있다. 지금의 우리가 그 사건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란 원리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 그 반지름이 5만광년 정도되는 우리의 은하 안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여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우리 은하의 반대 쪽에 위치한 별에서 오는 빛은 거의 10만년 전에 그 별을 떠난 것이다. 우주적 시간의 규모에서 볼 때 10만년이란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에 그 별은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 맞다면 빛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므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

찔 수 없는 한계상황일 것이다. 우리가 우주의 구조가 강요하는 한계상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오직 아름다운 하나의 환영(幻影)일 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 모두는 우리에게 환영으로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자체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마치 물거품과 같이 잠시 나타났다가 본래의 자리로 사라져 가는 것 뿐이다. 인연법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존재란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유위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또한 이슬이나 번개와 같다"고 하였다.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의미하는 진정한 뜻을 보면 글쓴 이의 의도를 알 수 있듯이, 자연을 보더라도 단순히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궁극의 원리를 본다면 그 안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오직 하나의 진리의 불법은 시방삼세(十方三世) 어디에도 예외없이 상주불멸(常住不滅)하며 상주불괴(常住不壞)하는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 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581-6364
	• 팩스	053-582-142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856-3280

불교성지순례

태국 5日 (₩ 569,000)
■서울-방콕(1)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에메랄드사원-파타야(2) 산호섬, 농눅-빌리지-방콕(1) 아유타야, 황금불사원-서울
●출발일 : 10/17, 24, 31
11/7, 14, 21, 28
▲항공: OZ, TG 사용

대만·화련 4日 (₩ 515,000)
■서울-대만(3) 기륭, 아류, 국립박물관, 용산사, 야시장, 중정기념관, 충렬사-화련-서울
●출발일 : 10/19, 26
11/2, 9, 16, 23, 30
▲항공: CX, TG, SQ 사용

해외신혼여행

♥방콕·파타야 5日 ♥괌 4日
♥태국(푸켓) 5日 ♥사이판 4日
♥호주 5日, 6日 ♥하와이 5日
*매일 출발 보장, 모든 지역 가능 상담환영

특선해외여행

괌·오사카	4日	서울-오사카(시내관광, 오사카성)-괌(3)시내관광, 남부관광-서울
	₩ 585,000부터	출발일 매주 월·수·금요일
홍콩·마카오	4日	서울-홍콩(1)-마카오(1)-홍콩(1)
	₩ 559,000부터	출발일 매주 화·목·일요일
동남아 3국	5日	서울-싱가폴(1)-바탐(1)-싱가폴(1)-조호바루(관광)-기내(1)-서울
	₩ 645,000부터	출발일 매주 토·일요일
북경·만리장성	4日	서울-북경(3)자금성, 만리장성, 이화원, 명13릉-서울
	₩ 685,000부터	출발일 매일 출발
미국서부	7日	서울-샌프란시스코(1)-후레스노(1)-그랜드캐년-라스베가스(1)-할렉스합(1)-로스엔젤레스(1)-기내(1)-서울
	₩ 699,000부터	출발일 매주 목·토요일
캐나디핵심	8日	서울-빵쿠버(2)-밴프(2)-토론토(3)-나이아가라(1)-기내(1)-서울
	₩ 1,495,000부터	출발일 매주 화요일
호주·뉴질랜드	8日	서울-기내(1)-골드코스트(1)-로토루아(1)-오클랜드(1)-시드니(2)-서울
	₩ 1,230,000부터	출발일 매주 목요일
유럽 4국	8日	서울-로마(2)-제네바(1)-파리(2)-런던(1)-기내(1)-서울
	₩ 1,540,000부터	출발일 매주 화요일

여행조건 10인이상 출발,해외여행보험가입, 1일3식제공(기내식 포함), 전일정 1급 및 특급호텔 교통항공 및 전용버스 이용, 전문가이드 동행, 예약7일전 마감(미주지역은 조기마감)
◆GOLF TOUR, 친목회, 졸업여행, 기업연수 등 해외여행 및 제반사항 상담환영

국외 여행업 817호 서울시 종로 신문로 2가 89-22
(주)아태관광 732-3200(代)

'진리의 삶, 깨달음의 숲'
석림불교아카데미
제2기 수강생 모집

여름 보내기와 가을 맞이에 더욱 청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본회에서는 사회, 역사,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올바른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일구어가는 시민의 학교, 석림불교아카데미 제2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합니다.
2기 강좌 내용을 소개하오니 이 깨달음의 자리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 2539년 10월
석림 불교아카데미 원장 혜 총

■강의일시: 월, 목요일 늦은 2시(매주 2회씩)
■개강일시: 1995년 10월 16일 늦은 2시
■문 의: 전화 (02) 723-5264 · FAX 736-6205
■원서접수: 사무실 방문 및 온라인 접수(접수비 6만원)
국민은행 050-24-0286-806(예금주/이승우)
■장 소: 한국불교발전연구원 법당
서울 신문로 2가 1-38 내자원빌딩 6층
모든 강의는 통신으로도 가능합니다.

특강
1. 경전강독:법화경/현해스님(월정사 주지)
매주 금요일 늦은 7시
2 불교 속에 습합된 역학의 바른 이해
/진열스님(감로암 주지, 철학박사)
매주 목요일 늦은 7시

2기 강의내용 (강의내용은 강사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아함경 속의 부처님 육성/정인스님(중앙승가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진홍스님(동국대, 철학박사)
선학의 황금시대/종호스님(동국대, 철학박사)
지자제와 불자의 자세/영담스님(석왕사 주지)
정토의 실현/보광스님(동국대, 철학박사)
21C 정보화시대의 불교/정목스님(불교방송)
불교의 심층심리/묘주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불교음악의 세계/변규백(서울대)
진리 속에서 올바른 자녀교육/조길조 법사(전군승단장)
불교문학의 올바른 이해/지원스님(시인)
불심과 茶香/김애리(전통다례원장)
불교인의 건강 365일/금오거사(금오 한의원장)

고은 불교 대하소설

네 사람의 태풍

이제 그곳에는 인답 우녀 과현 수원의 네 사람이 남게 되었다. 수월이 급환(急患)의 발작과도 같이 무욕도 도량의 한 현상을 신랄하게 매도한 직후 역시 그런 발작과도 같이 따나버린 충격은 남은 네사람에게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우녀가 이런 때 막힌 물꼬를 트려는듯이 한마디 말을 꺼냈다.

"수월스님이 떠난 것이 곧 우리 공부에 대한 더 없는 경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세 사람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우녀도 더이상의 말을 할 마음이 없었다.

아무리 신령스러운 경지를 터득한 눈빛 형형한 우녀일지라도 이제 수월이 한바탕 늬집어놓은 무욕도의 기운을 그녀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하였다.

인답의 입이 열린 것은 그러한 우녀에의 대답 때문이 아니라 함부로 내쉴 수도 없는 것 같은 한숨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런 한숨조차도 주책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침 가을 들어 두번째의 태풍이 들이닥쳤다. 가을이라고 하지만 이 섬에서는 가끔 다른 규모였다. 끝내 비구니처소의 정사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것이다. 우녀가 그런 무너진 갈대지붕 밑에서 장대비에 흠뻑 젖은채 살아나온 것이 다행이었다.

지난번 지붕이 벗겨진 큰 정사는 그뒤 단단히 대비한 나머지 지붕 한쪽만 뒬어져 나갔다.

건물이 이 지경이니 그 건물 안에 둔 곡식이나 살림살이들도 말이 아니게 푹 적셔졌다.

네 사람들도 아무리 비바람을 가리기에 급급한 바 있었으나 대번에 알몸이나 다를 바 없이 되어 한기에 소름이 덮여야 하였다.

"수월의 말이 맞기도 하지… 어디 지옥이 별도로 차려져 있겠는가. 바로 이런 비바람속이 물지옥 바람지옥 아닌가."

이번 태풍의 비바람은 거의 쉬는 일없이 꼬박 열흘이나 넘겼다. 어디에 물모시개에 물을 담길 곳이 있지 않아서 곡식을 물에 담갔다가 생식으로 끼니를 때울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네 사람의 입은 생쌀이나 잡곡을 씹는 일 밖에는 서로 말을 주고 받을 곡식의 수확을 앞둔 중요한 자연부락의 정서가 있을 리 없다.



47

소나무숲에 이어진 잡목림의 여기저기에 아직 붉지 않은 산수유열매가 무감각하게 달려있고 승이버섯이 소나무숲의 땅에서 솟아나왔을 뿐이었다. 모기는 이미 그 끄 빠는데 이골이 난 입이 비틀어졌거나 아예 맥을 못추었고 잠자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허물의 형상이었다.

이런 섬의 가을이지만 하늘이 마치 백년 원수라도 다 갚아버린 듯이 탁 트여 온통 쪽빛으로 가득차 있는 푸르름이어서 오로지 그것만이 가을의 절경이었다.

그런데 봄의 꽃에 꽃샘바람이 있어 꽃을 생으로 지게하는 것처럼 가을하늘도 태풍으로 하여금 그 명목을 없애버리는 것인가.

첫번째 태풍이 와서 섬의 갈대정사 지붕 따위가 홀러덩 벗겨져버린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자꾸 후미진 선착장의 나배 두 척과 떼배 한 척이 풀려나가 바다 복판으로 떠내려가 있는 것을 수원 수월이 헤엄쳐가서 붙들어 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의 수월이 배 한척을 타고 이곳을 떠난 뒤 태풍이 들이닥쳤다. 두번째였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앞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규모였다. 끝내 비구니처소의 정사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것이다. 우녀가 그런 무너진 갈대지붕 밑에서 장대비에 흠뻑 젖은채 살아나온 것이 다행이었다.

다만 이곳의 그것은 오로지 입을 다문 가운데 스스로의 비추어보는 절대의 심성을 묵(默)으로 하고 그 절대의 심성이 빛나는 것을 조(照)로 하는데서 비다 가운데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어야 하였다.

그것이 굉자의 묵조록(默照錄)에도 말하는 '연꽃 피는 경지(蓮華境)'인가.

하지만 이 섬의 비바람속에서야 어디에 꽃이 피겠는가. 수원이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다른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 한 귀퉁이 지붕을 복구하려고 입안에 스며드는 빗물을 내뱉을 겨를도 없었다.

파도도 더이상의 위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위력으로 바위벼랑을 내리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무서운 파도소리야말로 이 무욕도 하나쯤은 자취없이 삼켜버릴 것 같았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었다. 우녀들의 처소에 두었던 곡식도 약간만 건졌을 뿐 그 대부분은 파도가 덮쳐서 휩쓸어 갔으므로 도저히 그것을 인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네 사람이 새삼 생식으로나마 목숨을 부지할지 모르는 걱정도 차츰 커졌다.

"…"

오직 입을 꾹 다문 우수로 지내는 것이었다. 그럴진대 수원의 공부하는 것도 이런 우수 속의 한 옹고집이 아닌지 모른다.

이런 막다른 상황으로 10여일을 보낸 뒤 태풍의 꼬리는 섬에서 가장 오래된 몇백년 자리 은행나무 아름들이를 뿌리째 쓰러뜨리고 내려졌다.

수원이 잘 들어맞지 않는 문짝을 탁 열고 밖으로 나왔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무릎이 잘 과지지 않았다.

"괴로움이 숫제 거짓이니 이제 즐거움도 거짓일 밖에" 문짝을 탁 열고 밖으로 나온 수원은 자신도 모르게 한 마디 했다



꼬박 열흘간 계속된 태풍의 비바람속에 네사람은 한기를 느끼며 생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바닷바람이 여느때로 돌아가서 그의 앞가슴을 어루만져 주었다.

괴로움이 숫제 거짓이니
이제 즐거움도 거짓일 밖에

라고 그는 한 마디 말이 그 자신도 모르게 나왔다. 그것은 말이기보다 입안에 담겨있던 미적지근한 묽은 타액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말은 고대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갈점게(八漸偈)의 끝이 되는 '사(捨)' 항목이 읊은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못 괴로움을 다 구제하고는
대자비도 버린다
괴로움이 참이 아니라면
자비인들 어찌 거짓이 아니랴
(衆苦旣濟
大悲亦捨
苦旣非眞
悲亦是假
是故衆生
實無度者)

아무튼 방안에서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수원이 나오자 세 사람이 그를 반겼다. 그동안 수원은 생식으로 받아들인 쌀과 잡곡도 하루에 한끼 정도로 때우고 남겨 놓았다.

인답이 그런 수원을 아주 반갑게 대하였다.

"그동안 이곳 도량이 생긴 이래 자네와 같은 참된 공부를 한 적이 없었던 것만 같네그려."

그것은 태풍의 그 박찬 비바람과 성난 파도머리에 혈혈단신의 몸 하나로 대결하는 그 정신의 싸움이기도 했던 사실은 짐작도 할 수 없는 침찬이었다.

우녀와 과현이 고들꼬들 덜 마른 옷을 입은채로 와서 그동안 벽쪽으로만 돌아앉았던 수원의 정면을 대하였다. 서로 빙그레 웃음이 피어날 수 있었다.

"비바람속에서 집 지시느라고 욕보셨지요"라고 수원이 말을 꺼냈다.

이렇게 해서 무욕도에 오랜만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인답의 입이 활발해졌다. 이번의 태풍에 의해서 수월이 떠난 직후의 그 충격이 더 큰 충격으로 때워져서인지 무욕도는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일상적이라고는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뒤의 삼림살이는 처참한 피해로 말미암아 어떤 것부터 복구하고 수리해 나갈지 선뜻 엄두도 나지 않았다.

먼저 잔잔한 바다 덕택으로 떼배를 손보아 타고 물에 발을 디디는 일이 다급하였다. 그동안 물 쪽에서 건너오던 조구의 사람들도 궁금한 것이었다.

수원과 과현이 배를 저어갔다. 남은 배의 수선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단단히 매어둔 채였다.

서산과 안면도 그리고 결성 해안일대와 내포지방의 태풍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먼저 서산의 임첨지 집을 향하였다. 그 집 역시 마을 전체의 수재에 큰 부담이 되어 창고가 비어야 하였다.

그곳에서 들은 바로는 이런 호서 서부의 수재와는 달리 강원도 횡성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그 불길이 크게 번지다가 비 때문에 불길이 잡혔고 경기도 광주 일대의 봉수대가 있는 산들도 잇달아 화산으로 폭발해서 그 봉기둥이 며칠동안 하늘을 뚫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임첨지 셋째부인의 어린 딸이 앓았던 말이 아이없게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수원이 그 아이를 알아보려고 곡식 섬을 싣는 달구지 앞을 거들다가 안채를 엿보았다. 과연 어린 아이가 새빨간 다홍치마저고리를 앙징맞게 입은채 혼자 팔뚝만한 윷을 놀이 던지고 있었다.

그림 · 조향숙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 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 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변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밤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깊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소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참으로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밀을 완전히 갈아 없앤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소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 (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엇답하게 살 것인가? 활홀하게 살 것인가?
복잡한 명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살에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현자과 안일한 삶의 대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자랑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월일성 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지다 그 몸에 붙이를 것이다

임 RINZAI 제
조 JOSHU 주
마 MATZU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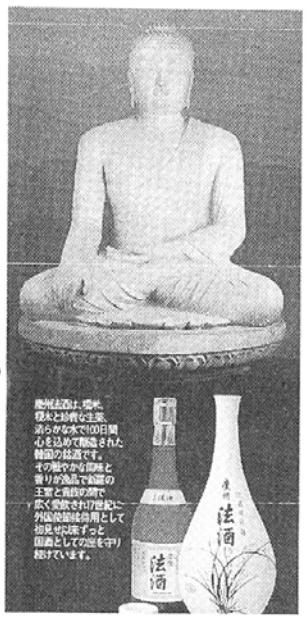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대원출판사 길벗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독 자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과 제안·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HBS3470



부처님 존영사용 술광고 경주 법주 '불교모독'

며칠전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기회가 있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했다. 그런데 대한항공 사보를 보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 존영밑에 술을 놓은 경주 법주 광고가 버젓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영문과 일어로 세계도처에 홍보되는 항공잡지인 대한항공 사보에 불보를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 것인지?

광고에 부처님을 이용하는 이같은 몰지각한 상술은 우리 불자들이 감시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시 화정동 박만철〉

도심포교에만 관심두고 농촌포교 등한시 아쉬워

요즘 시골마을에 가보면 곳곳에 십자가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시골에는 으레 먼 산등성이를 지나면 소담한 절이 있었다.

그래서 음력 초하루나 보름이면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부처님을 뵈러 산을 오르던 기억을 대부분의 시골출신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시골에는 절도 찾아보기 힘들고 절을 지키는 스님을 만나기는 힘들다.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 발맞춰 시골의 남아빠진 절을 버리고 스님들도 과감히 도시로 하나둘 떠났기 때문인가 하는 의심도 생긴다.

도시에서는 아파트촌 곳곳에서 포교당을 접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스님들께 부탁드리고 싶다.

요즘 스님들은 너무 도심포교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도심포교에만 전념하지 말고 의지할 곳 없는 우리 농촌의 한가운데서 수행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신도불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농촌 포교에 불교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광주시 서구 광천동 박문웅〉

가짜스님 일력 사기행각 자비베푼 후원자들 우롱

일력이라는 자칭 스님의 사기행각으로 평화로왔던 소쩍새마을은 온통 상처투성이다. 소쩍새마을의 가족들과 자비를 베푼 후원자들을 유린한 일력 그는 자신의 물욕을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 충족시키려 했고 그에 마땅한 죄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무비판과 맹목적으로 도운 수많은 후원자들은 통탄을 금치못하고 있다.

하지만 소쩍새마을은 여전히 자비의 도량으로 남아야한다. 상처받은 소쩍새가족을 위해 많은 불자들이 지금까지보다 더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겠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김인기〉

'크게 짓고 보자' 불사 깨달음과 거리 멀어

근래들어 불교계에서도 금정산 범어사 경동아파트 사건등 환경운동을 통한 사회참여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환경훼손외에 필요이상의 불사로 인해 사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천불이니, 만불이니 하며 너도 나도 아상(我相) 밝히는데 동참하고 있다. 언론마저 합세하여 무명에 빠진 사부대중을 더욱 미혹에 빠뜨리고 있다.

석가모니께서도 어리석은 중생들이 부처님 자신만을 의지할까봐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고 했다.

미혹한 중생을 진정한 인격완성, 깨달음의 길과는 거리가 먼 사찰사업의 물주로만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종교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종교계가 청정해야 사회도 함께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범어사 아파트 건립문제를 계기삼아 모든 것을 잘 선택하여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할것이다. 〈부산시 북구 만덕동 양혜자〉

얼마전 저는 남들이 가장 싫어하고 천박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병원영안실에서 매일 시체 만지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한 50대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병져누워 있는 동안 부인마저 도망가고 어려운 형편에 자식조차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뿔뿔이 헤어졌다는 그 사람은 남들이 모두 꺼리는 시체 닦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업을 닦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굉소 그러한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저는 시체 닦는 일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분은 절에 가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 하면서 자비행 실천하는 이웃 "많아"

그런 그분을 보면서 빈자일등의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분은 시대를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세상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애를 돈독히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사회에는 남이 싫어하는 일,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하여 참된 불자의 삶을 신행생활을 통해 열어나가는 이들도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더욱 많이 늘어났으면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 그분을 통해 저는 이기적이기만 했던 저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항상 이웃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는 복된 업을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서울 봉천동 심법련행〉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향 원



이른후 건강칼럼

<37>

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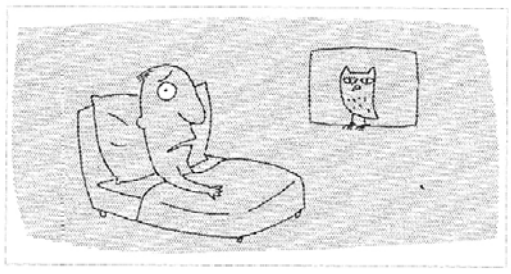
축적된 노페물 정화…정서적 평형얻어

정신과 외래를 찾아오신 환자 한분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다. 집안이 아주 유복한 분으로 겉보기에는 걱정이 없고 잠을 못잘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계속되는 불면증으로 외래를 찾으면서도 증상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던 분이다.

한번은 자신이 소원을 했단다. 병원으로 올라오면서 보니 한 지게꾼이 지게를 받혀놓고 낮잠을 즐기는데 아주 숙면상태에 빠져 표정이 평화롭고 편안하게 보이더란다. 지게꾼의 잠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바꾸더라도 내가 숙면할 수만 있다면 기꺼히 바꾸겠노라고 소원을 빌어 보았단다. 빈말이 아니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나에게 말했다.

잠을 잘 잘 수 없는 고통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다. 잠에 대한 연구는 요즈음 들어와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우리 몸에 어떤 피로물질이 축적되어 일어난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깨어 있는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우리 몸안에 많이 축적되어, 이 축적된 노폐물에 중독된 상태가 잠이란 것이다. 잠을 자는 동안 이 노폐물을 걸르고 자가정화 함으로써 아침에 다시 깨어날 수가 있다는 주장인데 이 설도 가장 중요한 노폐물이 어떤 피로물질인지를 증명해 내지 못함으로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잠에 대한 불교에서의 가르침 가운데, 잠을 아주 숙면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불면증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게 있다. 사람이 숙면을 하고 나면 다섯가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다섯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못자는 괴로움이 없다. 잠을 충분하게 잤으니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고 아주 만족하고 평안한 정서적 평형을 얻을 수가 있다. 둘째로는 난각의 괴로움이 없다. 마음이 담담하니 깨달음에 어려움이 있을리 없다. 세번째로는 수면하는 동안에 악몽이 없다. 꿈이 번잡하다는 것은 수면의 정도와 상태등이 평온하지 못하다는 증거도 된다.

네째로는 잠 잘때 선신이 와서 수호를 해 준다. 제천의 여러 신들이 와서 잠을 수호해 준다면 마음 놓고 잠을 자도 될일이 아닌가. 끝으로 잠을 깨고나서 마음이 선관법에 들기가 쉽다고 했다. 이는 모든 갈등상태가 없어졌으니 법에 드는데 장애가 적다는 뜻이리라.

이처럼 다섯가지의 이로움이 숙면을 하고 나면 우리들에게 찾아든다. 숙면을 하지 못하면 위에 적은 다섯가지를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신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견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불면증, 우울증, 엽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암, 중풍, 협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악물중독 외

■ 수련장 :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 안 내 : ☎ (0593) 34-1115~6

중국명문 한의대학
박사 과정 연수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침구·기공)
■기 간 : 8박 9일
■수료증 :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인 원 : 20명 이내
■출발일 : 1995년 10월 19일(목요일)
■남경중의약 대학
중국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삼화불교대학
Tel : (02)511-2026, 2027, 2028
Fax : (02)511-1080

월간 대중불교 10월호

정법의 눈
쇠북소리 제4차 세계유엔 여성회의 / 김정자
시사 5·18불기소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 이응림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프랑스 제품은 먹지도 입지도 맙시다 / 성낙진
문화유산 보호 캠페인 1 격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구산선문 1 실상선문 실상사 / 김희균·김성철
얼과 문화 전남 순천 낙안읍성 / 김효형·김성철
법당 이야기 9 토함산 석굴암 / 김현준
불교와 민속 9 家神신앙에 유입된 불교 / 김종대
폐사지를 찾아서 양주 회암사지 / 김상영·최태선
일본을 개척한 위대한 한국인들 1 일본 최초의 불교신도 '소아도목' / 홍윤기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극작가 신봉승 씨 / 김희균
불교교리산책 / 업 9 인업과 만업 / 정승석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9 마음관리 / 용타

특별기고
못 다한 교리강좌
부처님 사리,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평래)
특 집
내가 읽은 경전
적막한 객실의 간경삼매—〈반야심경〉 / 연관
간결한 핵심—〈법구경〉 / 목정배
여래의 지극한 본성—〈원각경〉 / 송찬우
팔만의 진수이자 개론—〈능엄경〉 / 혜정
너희도 무대의 주인공이 되리라—〈법화경〉 / 황남채

수행으로 가는 길 7 알고 믿는 믿음, 모르고 믿는 믿음 / 이제열
에세이 보살불교 10 / 법장보살 1 아미타 정토를 이룬 법장보살 / 일지
신행상담 이교도인 장남 대신 차남이 제사를 모셔도 되는지요? / 상덕
일상을 깨우는 산문들
수행길의 이런 도반 보살화현, 대구의 김내과병원 원장 / 효림
포교당 일기 7 장터 사람들 / 원묵
선화일편 마음이 가는 길 / 설산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 박승원·정정숙·박봉은
해외불교 읽기
환생의 나라, 티벳 4 간체 꿈불꽃 / 김선정
봉주우르, 길상 독일 나들이 / 지묵
한국밖의 한국불교 서부하늘에 드날리는 한국선풍 / 정응찰
달어나가는 불교
직장불교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 / 오경숙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바른수행 '불서삼매'로 북돋운다"

이 가을 신행단체장 4인이 읽고있는 불서

부처님은 알고 짓는 잘못보다 모르고 저지르는 죄악이 더 크다고 했다. 무지와 게으름을 경계한 뜻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불서읽기는 또다른 수행이며 신행이다. 불교의 생활화를 구현하는 신행단체장들이 권하는 '이 가을의 불서'를 함께 펼쳐보자.

능엄경 **삼라만상 실상 쉽게 정리**

육조단경 **돈오·견성사상 함축**

불교사 100장면 **불교대중화 당면과제**

친일불교론 **불교속 일제잔재 진단**

선가귀감 **선교 융합과 화합의 길**

현대사회와 불교 **참신한 불교상 제시**

불교를 알면… **문명위기와 불교 역할**

본지풍광 **선사들의 투철한 수행**

각종단 신도회의 모임인 전국신도단체협의회 김용직회장은 경전을 읽고 외우는 이는 많아도 부처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며 능엄경과 육조단경을 권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며, 깨달은 자리에서 보는 세상은 아니다. 본래 활짝 열려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나 티끌이 있을쏜가"라는 혜능스님의 유명한 게송을 소개했다.

교수불자연합회장 한상범교수(동국대·법학)는 "부처님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를 살피고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생각케해준다"라는 추천이유를 붙여 〈불교사 100장면〉(혜봉 지음, 가람기획)을 권했다.

또 기복불교 정치권력에 예속된 현대 우리불교의 모습은 일제잔재를 청산치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혜봉스님의 〈친일불교론〉(민족사)의 일독도 권했다.

삼보법회 조호정회장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우월함만을 강조할 뿐 남의 미덕을 존중해주지 않는 한국불교의 풍토가 안타깝다며 〈선가귀감〉을 '이 가을의 불서'로 추천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했듯이 선교를 융합한 화합·회통의 가르침을 후학들에게 강조한 명저"라고 추천이유를 설명했다. 〈선가귀감〉은 휴정스님의 저술로, 선의 사상과 방법을 간추린 일종의 선학개론서이다.

월간〈과학동아〉를 정기구독하고 있다는 조회장은 또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현대과학의 연구성과를 적극 수용, 불교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르침을 널리 펼쳐야 한다며 불교와 과학과의 관계를 밝힌 책들의 일독도 아울러 권했다.

성태용교수(건국대 철학, 우리는선우 운영위원장)는 '붓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현대사회와 불교〉(힌길사)를 꼽았다. 특히 이 책 가운데 월폴라 라훌라스님의 '불타의 가르침'은 "불교는 구태의연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참신한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명저"라며 불교에 관심있는 젊은이들이나 갓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강조했다.

요즘은 〈불교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를 읽고 있다는 성교수는 문명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적 세계관으로 불교가 역할해야 한다는 주제의식이 돋보이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불교를 알면…〉는 한국불교사회연구소가 개설한 '21세기 불교아카데미' 강좌내용을 묶은 것으로, '불교의 보편성과 미래의 비전' '새로운 문명관과 인간상' 등 8편의 글이 실려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이상번회장은 "한국불교 선맥의 진면목을 시적인 문체에 담은 책"이라는 말과 함께 성철스님의 〈본지풍광〉(장경각)을 꼽았다. 머리맡에 두고 하루 몇장씩 읽고 있다는 이회장은 성철스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 책을 보며 역시 큰 어른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며 "선사들의 투철한 수행정신을 이어받아 재가자들도 수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거듭 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불타의 가르침	이 기 영	불교진흥원
2	티벳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정신세계사
3	등신불	석 용 산	문학수첩
4	지금 이자리에서의 깨달음	데시마루	장 승
5	마음닦는 길(수심결)	강 건 기	불 일
6	영가천혼법어	석 성 우	토 방
7	42장경	라즈니쉬	성 하
8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임 현 담	효 형
9	절을 찾아서	고 은	책 세 상
10	무엇하러들 오셨는가	돈 연	미 학 사

구입문의:(02)737-0695

"방랑의 미학 소설로 형상화"

고은씨 '김삿갓' 펴내

"방랑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무상성(無償性)의 구현이다."

고은씨가 방랑시인 김삿갓(김병연)을 3권의 소설로 되살려 놓았다. 그리고 그 되살아난 김삿갓의 면모를 통해 방랑이 갖는 의미를 '가장 어려운 무상성의 구현'으로 압축하고 있다. 고은씨는 김삿갓의 방랑을 "인류의 항구적인 과제로서의 방랑"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방랑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인간이 가져야 할 방랑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한다.

기괴한 행동과 인간적 고뇌, 샘솟는 기지와 파도치는 시어(詩語)들로 점철된 김삿갓의 일생. 그러한 여정을 따라가는 이 소설의 행간에는 독자에게 '유별난 방랑'을 요구하는 기운이 스며있다.

〈풀빛, 각권 6천5백원〉

'다석 류영모의…' 일부 내용

진각종 "밀교 왜곡기술" 주장

최근 발행된 〈다석 류영모의 불교사상〉(박영호 지음, 문화일보사)이 일부 내용에서 불교의 한 흐름인 밀교를 왜곡되게 기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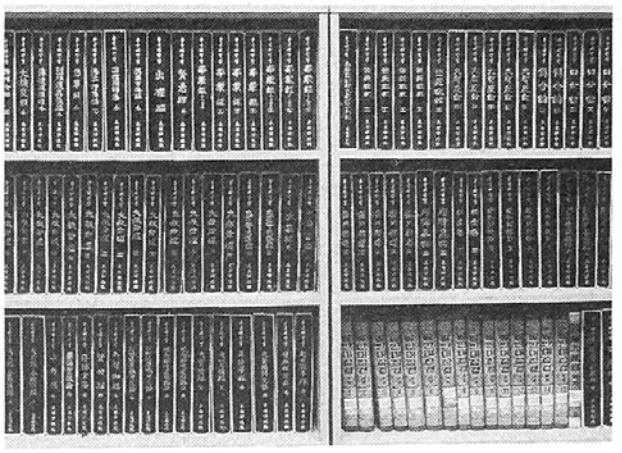
문제의 내용은 "밀불교는 부처가 가장 경계한 남녀의 교합 속에 무슨 오묘한 진리가 있는 듯 가르치며 남녀의 교합을 종교의식으로 행한다. 밀교는 사실상 성력(性力) 종교지 불교가 아니다…밀교가 신라 명랑(明朗)등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신라 고려의 망국을 재촉하였다. 조선조가 불교를 배척하고 탄압한데는 불교의 타락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P.18)라는 부분이다.

이에대해 밀교종단인 진각종의 한 관계자는 "인도의 한두적 성격의 탄트라를 밀교로 오해한 상식밖의 서술"이라고 비판 했다.

총지종 밀교연구소 김용배 연구원은 "성력파, 즉 좌도밀교를 밀교의 전부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며 종단에서 공개항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선시대 불교배척의 원인이 불교타락에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한 불교학자는 "조선시대의 배불정책은 새왕조 건설에 따른 이념창출과정에서 불교를 표적으로 삼은 정치행위적 성격이 짙다"라며 반박했다.

한편 이 책의 저자인 박영호씨(다석사상연구위원)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불교를 비롯해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서술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의 역경은 독자들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번역이 요구된다.

재원·전문인력 부족 '발등의 불'

한글날에 본 역경사업 오늘과 내일

250권중 180권 번역…97년 완역 목표

한글새김 탈피 해제·상세주석 필요

역경사업은 포교 도제양성과 함께 조계종단의 3대사업으로 천명할 정도로 중요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지체와 서행을 거듭해왔다.

역경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것이다. 1권당 제작비가 번역료를 포함해 2천7백만원이나 들어간다. 팔만대장경 번역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등국역경원의 경우, 현재 번역목표 250권 가운데 약 89%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역경원은 97년까지 팔만대장경을 완역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70여권을 더 펴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림잡아 20억원이 필요하다. 번역료의 인상, 제작비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비용산출이다.

국고보조금과 동국대 특별지원금, 역경진흥회 지원금 모두 합쳐 내년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14억원에 머문다.

역경사의 양성도 주요한 과제이다. 재원마련을 위해 역경을 뒤로 미룰 수 없다.역경위원들이 고령이기 때문이다. 불교지식과 한문해독능력, 인접학문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고루 갖춘 역경인력을 미리 양성했으면 문제될 것 없으나 이나마도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의 고령 역경위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행히 늦게나마 불전국역연수원이 설립되고 봉선사 불경서당이 꾸준히 역경위원을 배출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다음 문제는 얼마나 질높은 번역을 이뤄내느냐는 것이다. 전체국민의 80% 이상이 한글세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지난해 화엄경을 전12권으로 완역한 무비스님은 "경전은 최소한 3년마다 재번역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가 급변하듯 언어생활도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은 오늘날의 상황이 너무 비불교적이고 반생명적이라는 인식에 바탕함은 물론 경전이 포교의 가장 일차적인 자료라는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제 역경은 상세주석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해당 경전의 내용에 관한 체계적 파악과 번역의 품질향상, 경전의 개념어에 대한 구조적 이해, 인접분야의 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해석학적 복원이 모두 실현될 수 있는 불교경전의 종합정보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또하나의 과제를 안고 있다. 〈운〉

화제의 책

방한암선사 김호성 지음



문집이나 소설을 통해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이 궤적을 좇는 책들은 많았으나 대부분 자료의 집성 또는 일방적인 미화로 일관하기 일쑤여서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너무 높거나 멀리 있는 것으로 인식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방한암선사〉는 이전의 책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과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조계종의 초대종정을 지낸 방한암스님의 삶 즉, '선교겸수' '덕있는 수행자'로서 후학들에게 각인되었는가를 자료와 증언등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읽는 사람에게 공감과 의문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전기서술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한암스님의 선시를 통해 선사상을 드러낸 의도도 돋보인다. 한암스님 자료연구사, 출전목록을 수록했다. 〈민족사, 5천원〉

자료·증언토대 '선교겸수 삶' 분석

윤회의 법칙 김성규 지음



윤회의 법칙를 위해 저자(영남대 의대교수)는 엔트로피 상대성이론 불확성원리 등 현대물리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물리학에서 본 환상' '양자역학과 불교'등 40여편의 글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밝히고 있다. 즉 불교속의 과학, 과학속의 불교 찾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현대물리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전생과 윤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과 삶을 이루어 다시 태어날 자신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강조를 잊지 않는다. 〈큰산, 6천원〉

현대물리학 이론으로 본 불교 교리

숭산 스님 ⑨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9>

지구촌 전법이야기

폴란드에 선원 개원…유럽포교 교두보

英·스페인·브라질·佛 등에 '참나 찾는 큰 기쁨' 퍼져나가

미국 포교가 홍법원을 중심으로 한창 이어지고 있었다. 제자들은 법사로도 품수받고 입승·원주등의 소임을 맡기도 해 선원마다 운영이 잘 되는 가운데 선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그럴즈음 행원스님의 발길이 폴란드로 이어지고 있었으니 동구권 포교의 시작이 된 것이었다. 1978년 미국에서 제자가 된 안토니오교수(클라우대 심리학)의 안내로 처음 폴란드를 둘러보게 되었다. 폴란드는 공산국가였으므로 공항문을 나가는 일부터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안토니오교수를 통해 알게된 그곳의 교수, 미술가, 음악가 등이 스님을 맞이했다. 말하자면 폴란드의 전법은 그들 엘리트들의 불교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란 나라가 종교활동은 자유이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이고 보면 불교를 전하는 일도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오랫동안 불교 자체가 인정못받는 수난도 감안해야 했다. 불교가 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신자도 극히 적고 전법할 성직자도 없다는데 있었다. 그리고 주로 불교를 가까이하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층이거나 여행을 많이하는 예술분야의 인사들이라 반국가적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일종의 정치적 불신도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래도 숭산스님을 만난 젊은이들과 교수, 예술인들은 불교의 선수행과 그 의미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노력으로인해 월샤와에 홍법원을 개설하게 됐다. 월샤와 홍법원은 안토니오교수와 제이콥등이 열심히 이끌었다. 이듬해부터 미국의 신도들과 행원스님이 매년 방문해 용기를 북돋워 주었으므로 폴란드에도 여기저기 선원이 문을 열게 됐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78년에는 도달사와 도명사가 문을 열어 16명에게 5계를 설해 폴란드 선불교의 뿌리가 내려졌고 이듬해에도 심춘사가 창건되어 신도를 1백명에 이르게까지 포교를 했다. 80년에는 우체에 심명사를 열고 37명에게 5계를 설했고 81년에는 루브린의 심각사를 비롯해 심오사, 오도암이 각각 신설됐다. 이처럼 각지에 선원이 생기면서 순례법회도 자주 갖게 되었다.

"생(生)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생은 한낱 허공에 이는 흰구름과 같고 사(死)란 흰구름이 허공에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사람이 오고 가고 살고 죽는 것 모두가 저 흰구름과 같이 허망무실할진대 무엇을 삶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 물건이 있어서 그 놈은 맑고 깨끗하여 생사에 따르지 아니하니 그 맑고 깨끗한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제이콥의 통역으로 법문을 듣는 폴란드의 젊은이들과 교수, 예술가들은 목에 침을 꿀꺽덕 삼키며 다음에 이어질 스님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禪)이란 나 자신을 발견하여 대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 만중생의 마음속에 대광명을 밝혀주어 참다운 인생, 영원한 생명, 즉 '참나' 속에서 생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여 고해의 중생들을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건져 주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확신시키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생사마저 초탈하는 큰 지혜의 성취가 선이란 소식을 동방의 한 스님에게서 전해들은 폴란드의 지성들. 그들은 줄곧 말이 없더니 스님이 "이제 다들 아시겠는가. 그래, 그대들에게 들린 나의 이야기는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그대들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가, 좋은 것이 원래부터 좋은것이었고 나쁜것은 원래부터 나쁜 것이었는가, 어디 대답을 해 보시라"고 독촉하니 놀라움을 탄하는 소리만 내지르고 있었다.

그렇게 선불교의 길을 엿보기 시작한 폴란드의 불자들. 그들은 각지역 선원에서 지도를 받으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폴란드 포교는 달릴수록 계속 힘을 받으며 가속력을 더해갔다.

다음의 전법지는 영국이었다. 폴란드와 같은해인 78년에 서백림 무문선원을 연 사람은 종철법사였는데 그곳을 교두보로 영국포교도 씨앗을 틔워 잎돋고 줄기가 자라기에 이르렀다. 그 잎과 줄기는 80년의 런던선원 개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종철법사는 독일인 내과의사로 정신과, 침술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그는 일본식 참선을 오래 배웠었다. 그러나 행원스님을 만난이후 한국선의 종지를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 85년 프랑스 파리 달마사 개원법회를 주관하는 행원스님.

"통역으로 법문을 듣는 폴란드 젊은이들은 목에 침을 삼키며 스님의 얘기에 빠져들고…"

런던선원에이어 다음해에는 스페인 팔마에 선원을 열었고 82년에는 미국에서 세계평화종교지도자대회를 개최했는데 대성황이었다. 로르 아일랜드 뉴헤븐선센터에 세계 19개국 불교지도자가 참석해 세계평화를 위해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다짐을한 이 대회는 행원스님의 세계전법의 중간 결실이기도 했다.

이어 83년에는 브라질 쌍파울로에, 2년 뒤에는 프랑스 파리에 선원 달마사를 개원했다. 어느나라 어느 도시이건 전법의 물줄기가 흘러들 길은 있었고 그 물을 기다리는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행원스님에게 국경을 넘어서는 전법여행을 계속하게하는 하나의 당위이자 격려이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오페라 '원효' 가을무대 올린다

국내 정상급 성악가 출연 '화쟁사상과 사랑' 전해

예술의 전당서 26일부터 4일간 공연

역사속 인물을 소재로 한 국내유일의 창작 오페라 '원효'가 12년만에 오는 26일부터 4일간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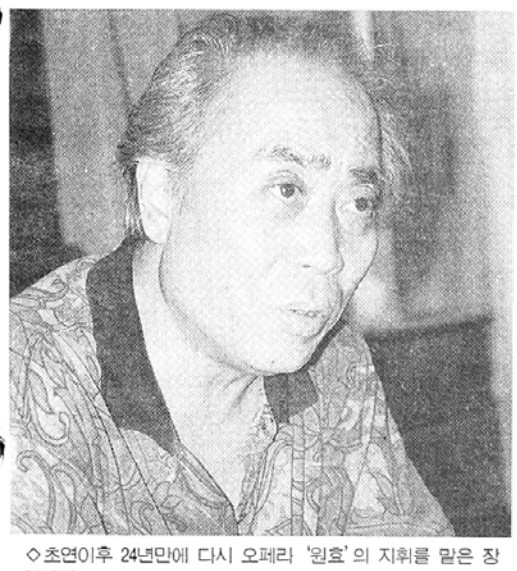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원효'를 완곡한 지휘자 장일남씨가 1971년의 '원효' 초연이래 24년만에 다시 지휘봉을 잡는다.

광복 50주년 기념, 한국 창작 오페라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오페라 '원효'는 71년 김자경오페라단과 83년 국립오페라단의 공연에 이어 세번째 무대.

글로리아 오페라단(단장 양수화)이 창단 4주년 기념으로 준비한 이번 공연에서는 바리톤 김성길·김진섭씨가 주인공으로 출연, 오페라 '원효'의 무게를 더한다. 또 요석공주 역에는 박경신·신애령(소프라노), 거칠랑에는 조현준·백인수(테너), 원효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대안대사 역에는 강태욱·이용찬(바리톤), 의상대사 역에는 우영훈(테너) 등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 원효의 무애정신과 화쟁사상을 전한다.

4막6장으로 펼쳐지는 오페라 '원효'는 가을이 깊어 풀꽃조차 메마른 요동 벌판을 원효와 의상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당나라로 가던 중 고구려 군사에게 첩자로 오인받아 쫓기던 두 비구는 눈을 피해 옛무덤가에 몸을 숨기고 잠이 든다. 원효는 잠결에 목이 말라 마신 물이 해골에 고인 썩은 물임을 뒤늦게 알게되고, 동시에 불도(佛道)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자기의 뜻 한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무애(無碍)의 뜻을 되새기며 홀로 돌아온 원효는 마침내 가련한 중생의 한 사람인 요석공주의 사랑을 중생구제의 뜻에서 받아 들이게 된다. 그러나 원효는 지난밤의 업연을 스스로 나무라며 요석궁을 빠져 나온다.

은내벌에서 문둥이들을 돌보며 무애를 가르치고 있는 원효와 사랑을 갈구하러 온 요석은 다시 만난다. 그러나 원효는 요석에게 영겁을 사는 길을 일러주고, 또다시 길을 떠나는 것으로 무대는 막을 내린다.



◇초연이후 24년만에 다시 오페라 '원효'의 지휘를 맡은 장일남씨.

"법정스님 도움으로 불국사서 작곡 완성"

'원효' 24년만에 다시 지휘봉 잡은 장일남씨

24년만에 '원효'를 지휘하는 작곡가 장일남씨는 초연때의 감동을 새삼 떠올리며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구상끝에 완성하신 오페라를 공연된 햇수로는 12년, 직접 지휘하시기로는 24년만에 다시 무대에 올리게 되셨는데 감회가 어떠신지요.

▲불자인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교인물을 소재로한 오페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더 많은 고승들의 얘기가 발표되지 않아 아쉽기도 한 일입니다.

-'원효'의 작품 구성에 법정스님과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경수교수님이 도움을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71년 초연을 앞두고 작품을 마무리 할 때지요. 불국사에서 법정스님을 만나 1주일간 함께 지냈는데 스님께서 원효의 삶이 갖는 드라마틱한 요소와 사상이 갖는 무한성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교수도 이런 점에서 도움을 주었고요. 음악적인 완성은 그때 석굴암의 새벽예불에서 스님들의 염불소리에 문득 가슴이 열려 이뤄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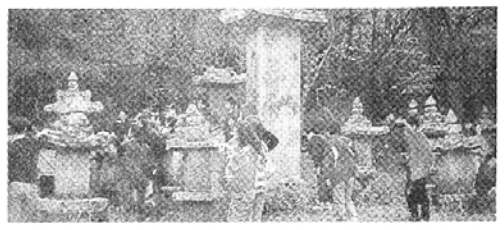
-대본을 쓰신 김민부씨는 어떤 분입니까.

▲16세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한 천재작가였는데 '원효'가 초연된 이듬해 자살을 했지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저도 더 많은 고승들을 오페라로 재연해 낼 수 있었을텐데 애석한 일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고승의 일생을 오페라 작품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때 '미친짓'이란 주변의 소리도 있었지요. 그러나 원효의 일생을 알게 되면 그분께 매료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원효의 실천불교적 삶은 오래도록 우리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고, 그분의 그런 뜻을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전달하는게 저에게 맡겨진 과제라 믿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필선 기자



◇'문화의 달'을 맞아 문화재 탐방등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10월은 문화의 달

문화재 탐방교실등 행사 '7백여건'

'일등나라 일등국민 문화가 만듭니다'라는 기치아래 서울을 비롯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에서 10월 한달동안 7백여건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전국에서 펼쳐지는 문화마당에는 불자들이 꼭 챙겨 볼만한 행사도 많다. 오는 7일까지 관악구청에서 열리는 문화재 사진전시회,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이는 한글특별전시회(~15일), 경복궁내 한국전통공예미술관의 '전통공예문화상품 공모전'(18일~11월27일), 오는 20일 봉은사를 비롯 각지에서 열리는 '문화재 탐방교실'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지는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 등이 그것이다.

뿐만아니라 문화의 날(20일), 미술의 날(21일), 문화의 날(22일)이 이어지는 문화축제 주간에는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개최된다.

불심시심 〈34〉

꿈에도 저자거리 가지 않다

丹霞深處一間菴 (단하심처일간암)	선경의 깊은 곳 한 칸의 암자
猿鶴兼僧但有三 (원학겸승단유삼)	원숭이와 백학 겸해서 중 다만 셋
魂夢不曾到城市 (혼몽불증도성시)	꿈에도 성문 안에 가 본 적 없거늘
世緣何事入雲嵐 (세연하사업운람)	세상 인연 어찌해서 구름 속 들었나

위 시는 제월당(霽月堂: 1544~1633) 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법휘는 경헌(敬軒)이다. 대사는 출가하기 이전에 이미 유가의 경전을 두루 섭렵하였고 출가 후에는 지리산에서 뭇 경전을 두루 참학한 뒤, 30세에 묘향산으로 가 청허대사에게 참례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자 좌영장의 직첩을 내렸지만 굳이 사양하다가 청허대사의 부름에 할 수 없이 참여하여 승군을 이끌고 전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선교양판사의 임무를 맡겼지만 굳이 사양하였다.

제월당대사는 이러한 시대상황에 임기응변하듯이 그의 시에도 유·불·선 3교를 넘나드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위에 쓴 시에서는 굳이 종교적 이념이 배어있거나 배타적 의도는 없지만 당시 승속간에 원만을 유지하면서도 산승으로서의 위치를 굳히는 결연함이 보인다.

이 시는 장흥에서 암자를 짓고 독서하고 있을 때 군수가 채소를 차출하라 하니 시를 지어 거절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사회사정으로 보아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음도 대사가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이기도 하지만 시어의 내용은 세속을 떠나 담담히 지내는 산승에게 이러한 격외의 주문이 있을 수 없다는 고고함이다. 그러면서도 붉은 안개(丹霞)니 백학이니 하는 시어는 산인으로 자처하는 선가(仙家)적 풍미가 짙은 용어이기도 하니, 굳이 유가로서의 관리와 불가로서의 승려로서의 거리로 느낄 것이 아니라 승·속 어디서라도 세속의 시끄러움을 떠난 자연의 선계로 인식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문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가사회 속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냈던 당시의 큰 스님들의 도량과 거기에 도구로 등장되었던 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공연·전시

혜진선원 합창단 14일 '찬불가의 밤'

혜진선원 합창단 정기공연 제2회 찬불가의 밤이 오는 14일 오후 6시 시흥 소래농협 강당(시청앞)에서 열린다.

혜진선원(원장 승헌) 개원 5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해탈의 기쁨' '아리랑' 등이 연주된다. 또 정진스님이 특별출연해 '염주' '그네'를 노래하고, 박나영, 김보미양이 노래와 피아노 연주를 선사한다.

원일스님 서화전시회

16~20일 온양관광호텔

원일스님(보광암 주지) 서화전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다.

93년 대구시민회관에서의 전시에 이은 두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회에는 산수, 연꽃 등을 소재로 한 동양화와 관음도, 달마도, 승무도 등의 불화, 서예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또 반야심경 병풍과 소품으로 금서와 범서도 전시된다.

'빛의 작가' 이동철씨 신작전

통의동 진화랑… '만다라' '영겁' 등 50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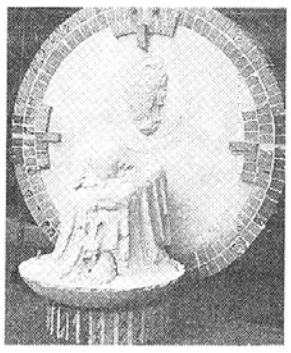
'빛의 작가' 이동철교수(서울대 서양화과)가 지난 4일부터 통의동 진화랑 초대로 신작전을 열고 있다.

88년 개인전 이후 7년만에 갖는 이번 작품전에서 그는 니르바나(열반)의 지고한 상태, 즉 인간의 절대적 인상인 빛을 체험으로서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바람과 에너지, 리듬이 합쳐진 비에서부터 지난 8월 중부를 강타한 폭우까지 관람자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시작·우주·자연·명상 등 빛을 주제로 한 4가지 영역의 신작들로 구성된다.

출품작은 '만다라'와 '영겁'을 비롯, 50백호 크기의 '동·서·남·북' 연작을 포함한 50여점으로 오는 27일까지 전시된다.

배효남씨 '성연의 세월' 미술대전 조각부문 우수상



◇배효남씨의 '성연의 세월'.

석굴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골두를 본 뜬 배효남씨의 작품 '성연의 세월'이 제 1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조각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채근담〉에 나온 반야심경의 뜻 풀이이기도 한 '성연의 세월'에서 이씨는 둥근 원을 통해 윤회사상을 나타내고, 불두를 본뜬 원형을 통해 망실돼가는 불교 문화재의 소중함을 얘기하고자 했다.

문화재

백제시대 절터 발견

능산리, 유물 다량 출토

충남 부여 능산리 유적지에서 백제시대 절터와 금동광배편, 소조불편, 연꽃무늬수막새, 금동제 방울등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지난 5월부터 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과 라성(사적 제58호)사이의 능산리 일대를 발굴한 결과 백제시대 절터로 추정되는 5개소의 건물터와 유물 다수를 출토했다.

부여박물관은 또 지난 92년부터 4차에 걸친 발굴 성과를 종합해 본 결과 "능산리 유적은 일탑일금당(一塔一金堂)의 가람배치를 이룬 절로 사비도성의 외곽을 둘러싼 부여 라성과 백제 왕릉으로 이어지는 능산리 고분군 사이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절터는 능사(陵寺)였음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해인사 장경각 연내 응급보수

해인사 장경각에 대한 전면보수가 시급함에도 불구, 문화재관리국측은 연내에 응급보수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우려의 소리가 높다.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빠른 시일안에 장경각 구조 전반에 대한 정밀 지침조사를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올해안에 응급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인사의 한 스님은 "현행 문화재관리법상 대장경과 경판의 보존·관리는 문체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인사는 보관만 하는 이원적인 운영체계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경각의 보수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교계의 여론에도 불구, 지금의 문화재관리법과 전통사찰보존법은 효과적인 지침을 담고 있기는 커녕 업무지연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본지 46호 15면 참조〉

불음가득,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 · 책방 여시아문 개관 1주년 기념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판본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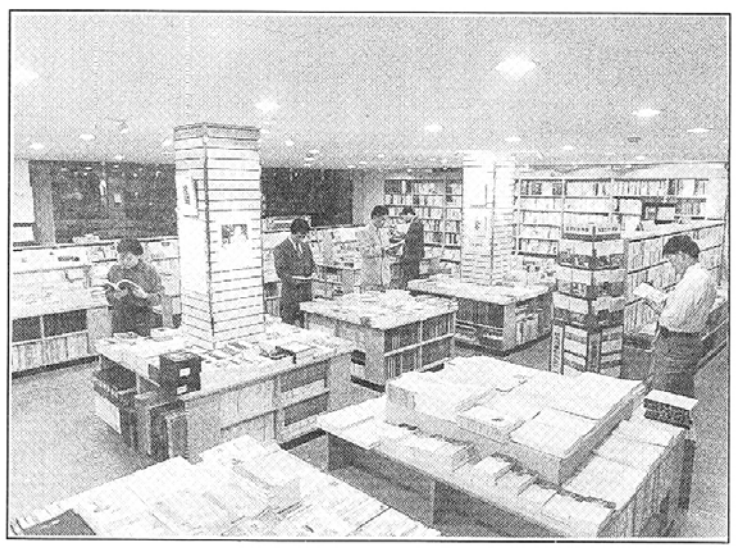
결실의 계절 가을,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은 각각 창간과 개관 1주년을 맞아 만해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판본 총 82종을 전시, 이 가을의 풍요로움에 그 향기를 더하고자 합니다. 만해사상연구회(회장:전보삼)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1926년 회동서관에서 간행된 '님의 침묵' 초판에서부터 최근 1995년 5월 16일 간행된 '님의 침묵'(문학과 현실사)까지 총 82종의 시집이 전시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스님의 사상과 문학 그리고 그 블꽃같은 민족애에 흠뻑 심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침묵' 이야말로 우리 민족 정서의 근간

'님의 침묵'은 1926년 초판 발행 이래 70여년간 82종의 시집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님의 침묵'이야말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끌어 온 정신적 지주이며 민족정서의 근간임을 나타내줍니다.

간행역사에 따라 '님의 침묵' 참뜻 왜곡·굴절

특히 26년과 34년 등 일제시대에 간행된 두 권의 시집에서 10년 단위로 시대별 시집을 검토해 보면, 근·현대 문법표기의 문제와 거듭되는 간행에 따라 '님의 침묵'의 참뜻이 왜곡·굴절되기까지 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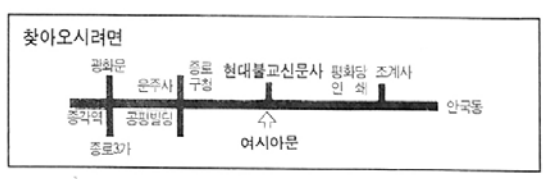


'님'과 '침묵' 만해 스님 문학의 대표적 정신

시집 제목이 줄기차게 '님의 침묵'으로(80% 이상) 간행된 것은 만해스님의 문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정신이 바로 '님'과 '침묵'이란 것이 면면히 인식되어 왔음을 입증합니다.

- 전시일정 : 10월 20일 ~ 11월 3일
- 장 소 : 책방 여시아문
- 전시판본 : 1926년에서 1995년까지 총 82종
- 기타 전시물 : 만해스님 영정·만해시비 사진 액자(5점)·'님의 침묵' 전문
- 강 연 회 : 10월 27일 오후 6시 녹수청산
  1부-'님의 침묵' 판본 수집의 의의와 과정〈전보삼·만해사상연구소장〉
  2부-'님'과 '침묵'의 현대적 해석

찾아오시려면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btn 기업참여 유도 '활로 모색'

불자경영인 반응 미지근…"실업인회 구성필요" 의견도

정부가 지난달 28일 '새방송법'을 입법예고한 이후 불자기업의 btn 참여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전의 방송법은 기업의 최대주식 보유지분을 30%로 한정했으나 새방송법은 보유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것이 주된 내용. 때문에 불교텔레비전도 활로모색을 위해 불자기업인들을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은 이미 지난 2차주식공모때 대표적인 불자기업인 쌍용그룹의 참여를 검토하고 관계자를 통해 의사타진을 했으나 쌍용측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의 한 관계자는 "1·2차 주식공모시 불자기업인을 상대로 참여여부를 타진해 봤지만 우리나라 기업현실상 대부분의 불자기업인들은 종교방송의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차원이 아닌 개인적 참여나 불교실업인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종단차원에서 불자기업인들을 유치하면 불자기업의 참여는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금년초 본지 조사에 의하면 쌍용, 한진, 금호, 효성, 동국, 극동, 한신, 삼양, 한일, 건영, 해태, 한보 등의 그룹총수들이 불자들이며 불자기업인들은 기독교 기업인들과는 달리 불사참여와 개인신행생활에만 주력하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기업의 btn 경영참여는 안정적인 재정속에 보다 질높은 포교방송을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영상포교매체가 경쟁적인 방송시장에서 살아남기위한 활로모색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정부의 새 방송법 입법예고 이후 불교TV 경영에 대한 불자기업인 참여가 교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TV 신행상담' 진행장면.

방송가소식

청주 BBS 개국연기

청사 내년말 완공 예정

당초 내년초과일 예정됐던 청주불교방송의 개국이 내년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불교방송은 지난달 말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5백여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사를 신축키로 해 건물이 완공되는 '내년말 개국'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 불교방송은 6일 대구지역 실업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권선문을 사찰 및 단체에 보낸데 이어 불방 추진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이달안에 만들어 발송키로 했다. 대구지역의 방송국 청사로 진각회관 7·8층이 논의되고 있으며 내년 초 파일 목표로 개국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BBS사장 정치인 배제

조계종 118회 종회 결의

조계종 118회 종회는 지난달 29일 불교방송 사장선임과 관련 "신심있고 각종단과 화합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과 방송인으로 하고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결의를 통과하고 건의서를 불교방송○사회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불교방송 사장직대 종하스님은 지난 4일 강한필 전무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앞서 종하사장직대는 지난달 29일에도 "지난 18차 이사회 결정사항이었던 '8월말까지의 3인 정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며 권고사직을 촉구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강한필 전무는 "10월말까지 한시적이고 3인 문제에만 국한된 권한을 받아 사장직대를 맡은 지난 19차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관건립 축원법회

불자예술인 연합회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준비위원장 박규채) 창립총회 및 예술인 회관건립 불사 축원법회가 지난달 30일 양천구 본각사 내에서 열렸다.

탤런트, 영화배우, 코미디언, 가수를 비롯한 음악인, 미술인 등을 총망라 한다는 계획아래 창립된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숙원사업이었던 예술인 회관건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축원법회에 이어 2부에서는 코미디언 최영준씨의 사회로 남진, 김국환, 김흥국, 남궁랑, 이유라씨 등이 출연 불자연예인 자선공연 및 놀이한마당이 펼쳐졌다.

'한글 경전 사업' 조명

btn 한글날 특집 방송

불교텔레비전은 9일 한글날 특집좌담 '경전 한글화사업 어디까지 왔나'(11:10~12:00)를 방송했다.

불교의 뿌리내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경사업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보는 프로로 한글판 불교사전 한글대장경 등 경전의 한글화 성과와 가치를 조명하고 한글 경전시대를 진단하는 프로. 정병조교수의 사회로 권기종교수, 월운스님, 박경훈씨가 출연했다.

btn 자원봉사단 27일 발대식

불교텔레비전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오는 27일 오후 3시 마포 석불사 강당에서 열린다.

불교텔레비전 자원봉사요원은 4일 현재까지 1백6명의 불자가 참가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btn 프로참여와 각종 홍보업무의 보조양로원 방문등 봉사활동을 하게된다.

조계종의 재정혁신

목탁소리

이 경 숙 〈취재1부 차장〉

조계종이 지난달 27일 '사찰등급 배정에 관한 시행령(안)'을 발표하며 재정행정의 일대 혁신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지난 81년 제정된 '사찰등급 조정규정'에 의해 분담금을 배정해 왔다. 5년마다 재조정하게 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찰변화나 재정여건이 반영안돼 분담금에 대한 구설수가 많았고 납부율도 저조했다.

심지어는 로비(?)에 따라 분담금이 깎인다거나 합(?)있는 사찰은 내지 않고도 큰소리 쳐 왔던 것이 작금까지의 현실이다. 9일부터 실시되는 본사를 비롯 주요사찰의 재정파악이 완료되면 이 결과에 의거해 사찰규모 입지조건 환경 등을 고려 본사는 21개등급, 말사는 30개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조계종은 사찰등급을 2년마다 재조정해 제도가 정착을 이루게 되면 일반분담금의 세수이익이 최소로 잡더라도 금년 예산의 2~3배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다.

그렇게되면 예산부족으로 쩔쩔매는 교육·포교등 종단의 목적사업에 한층 매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종단관계자들의 낙관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하는 쪽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쪽이 구태의연한 관행을 버리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지난 8월 사찰재정조사때 일부 사찰에서는 수입장부가 전혀 없거나 영수증에 맞춰 수입을 잡는다거나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종단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스님들이 절에 들어온 시주가 '공금'이란 생각을 못한다"고 개탄한다. 어떻게든 불사에 쓰면 되는거지 하는 사고방식이나 돈이 있으면 막 쓰고 없으면 말고 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사찰등급배정에 관한 시행령이 종단행정쇄신의 단초를 여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

'인사와 재정'이 개혁 완수의 관건임을 누구도 부인 못한다.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재정행정과 합리적이고 안정된 인사운용을 기대한다.

동국대 부설연구소 7개로 통합

불교문화연구원등 체계화로 기능 강화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달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소장 문명대) 선학연구소(소장 현각스님)를 불교문화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등 22개 부속연구소를 7개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소 통합·개편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연구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연구활동의 저조, 교외 연구프로젝트 선정률 저조 등 그간 연구소가 안고 있던 많은 문제점이 이번 개편을 통해 어느정도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연구소 관계자들의 인사문제와 예산 배분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어 1~2년 운영과정을 지켜보자는 주문도 적지 않다.

새로 통합된 연구원은 △불교문화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경제·경영연구원 △교육연구원 △자연과학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 등 6개이며 △멀티미디어종합연구소가 신설되고 경주캠퍼스의 한의과대학부설한의학연구소가 한의학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분야나 기능이 유사한 연구소를 통합하여 집중화 체계화 조직화함으로써 특성화된 연구조직형성과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이뤄졌다.

특히 통합되는 불교문화연구원은 연구원내에 불교문화연구부 불교미술문화재연구부 선학연구부를 두게 돼 공동연구를 통한 불교학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창종정신 되살려 종단쇄신하자"

지난달 29일 태고종 원로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 화합과 쇄신에 전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안덕암스님의 초청형식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박서봉총무원장, 홍인곡 장백응 박혜륜 차동월 박금봉 이석천스님 등 태고종 원로스님 10여명이 모였다.

종합불교회관 기공

16일 천태종 삼양사

천태종 밀양 삼양사(주지 월장스님)는 오는 16일 종합불교회관 기공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종단의 숙원사업인 종합불교회관은 총 7백여평 5층규모로 대웅전, 어린이 집, 종무소, 식당 등을 비롯 부대시설을 갖추고 오는 97년 1차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주지 월장스님은 "모든 천태불자의 숙원사업인 종합불교회관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되면 밀양지역 불교포교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구룡사에 보드가야 보리수묘목 기증

인도 U.P주 미야와티 주지사



"한국에 부처님 가르침이 가득하길"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자 동양의 불교국가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일 서울구룡사에서 부처님이 성도한 보드가야의 보리수 묘목을 기증한 인도 U.P주 마야와티 주지사(36세)는 "부처님은 평화의 전달자"라며 "보리수와 함께 한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도 불자라고 소개한 마야와티 주지사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인연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마야와티 주지사는 "U.P주는 부처님이 처음 법문을 설한 녹야원과 열반지 구시나가라가 있는 불교성지다"며 "한국의 불자들이 성지순례를 통해 신심을 돈독히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엽〉

방송 하일라이트

btn ch32

해외 입양아 대책은

TV신행상담 (12일 11시 10분~12시) 해외 입양아 수출국 세계1위.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시간에는 버려지는 아이들의 바람직한 입양 및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다루어 본다

동국병원 이동식 원장

btn특강 (12일 12시 30분~1시20분) 동국병원 이동식원장을 초대하여 한국인의 잘못된 정신세계와 불교의 사상을 접목해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작곡가 최영철씨 신행

나의 삶 나의 불교 (13일 11:10~12:00) 삼귀의, 사홍서원, 찬불가의 작곡가 최영철씨를 초대하여 그의 인생에서 불교의 의미와 생활불교를 들어본다.

승려시인 되고픈 중학생

우리도 부처님같이 (14일 10:10~11:10)부모없이 자랐지만 꿋꿋하게 부처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승려시인이 되고픈 아이 이민진 학생(서라벌여중 3년)의 살아가는 모습이 소개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법현스님 컴퓨터 상담

살며 생각하며 (12일 23:10~24:00)컴퓨터 통신과 전화연결을 통해 우리주변의 이야기를 법현스님과 나누어 본다. 참여신청전화 705~5555

만권스님 유마경 강의

경전공부 (13일 오전 6시 5분~6시 25분) 유마경의 구조와 그 사상에 대해서 대구 대승원 만권스님이 강의.

심리학으로 보는 시사

생방송 천수천안 (14일 16:10~16:40) 이경훈 심리학 박사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코너를 통해 한주간의 시사문제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본다.

'트롯트 한마당' 진행

백팔가요 (15일 오후12시 20분~1시 55분) 일요스페셜 '트롯트 한마당'을 통해 따뜻한 정이 흐르는 전통 트롯트의 향수를 느껴본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성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지의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그룹으로 周易 강의합니다
易은 효율한 철학서인 동시에 占書이기도 한데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미래에 야기될 사태를 정확히 예고하는 특수의 인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정 3개월
전화 (02) 723-5665
※지방도 출장지도합니다.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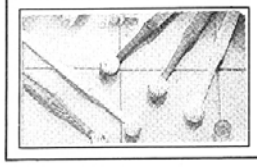
공장부지 급매
■위치 : 화성군 남양면 소재
■평수 : 약 4천평 정도
연락처
0339-356-8383~5
011-278-0469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험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성동갑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 지방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합장
대 표 이 규 영
동양석재 주간 : (0357)541-4705 야간 : (0351)847-2001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무대중에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관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익심동지점 096-01-239051(서울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제한자도함)
정저한 학습관리! 전화점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열(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혜운한안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르바써비스 080-023-4600

"내부모 모시듯 노인께 점심공양"

교계 '관음의 집' 등 10여곳 운영…효·불교사회화 실천

낮 12시가 가까워오면 서울 강동구 길동지역 노인들은 하나둘씩 '관음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무료로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관음의 집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지난달 29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노인무료급식소·관음의 집을 이용하는 노인은 하루 평균 1백여명.

대부분이 점심을 차려줄 가족이 없는 외로운 노인들이다.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만종빌딩 지하에 마련된 관음의집은 매주 화 수 목요일 이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부처님 모시듯 노인모시는 사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근 2~3년새 교계에 노인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확산되고 있어 외로운 노인들의 노후를 부처님 품안에서 회향하고 불교사회화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계에는 현재 관음의 집을 비롯 10여개의 무료급식소가 운용되고 있다. 시민운동차원서 무료급식사업을 전개해온 경불련은 지난 93년부터 상계동과 미아동에 자비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불련은 현재 부산지역 자비의 집 건립을 추진중이기도 하다. 또한 경주 분황사가 불국사와 지역 신행단체의 협조아래 무료급식소를 운영중이다.

이밖에 조계사 청년회가 서울 탑골공원서, 부산 대각사 청년회가 용두산 공원서 밥과 국수등의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계 위탁 복지관에서도 노인무료급식이 확산되고 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과 삼전복지관등은 이전의 밑반찬 제공 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일주일에 1~2회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무료급식소외에도 도선사, 봉은사, 연주암 등 각 사찰에서도 오래전부터 무료로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왔다.

자비의 집 신응균총무는 "교계의 무료급식소는 전체 무료급식소의 5%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기존의 사찰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점심무료공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노인무료급식사업 확대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은자 기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의 보리수가 한국에 왔다. 구람니비 아자르 인도 민함 및 관광성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마아외티 인도 U.P주 주지사(오른쪽) 일행은 지난 5일 서울 구룡사에서 부다가야 보리수 묘목 1그루를 구룡사주지 정우스님(왼쪽)에게 기증했다. 이 보리수 묘목은 불보종찰 통도사에 이식된다. 이날 보리수 기증식에는 아쇼크팔와 인도 관광청장(왼쪽 두번째)과 사샨크 주한 인도대사(중앙) 등이 동참했다. 〈관련인터뷰 14면〉

"일부 언론 '마리산' 표기 주민 반발"

강화 마니산을 일부 언론에서 '마리산'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에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마니산 정기 계승발전보존회 박덕성회장은 "조선일보(9월25일자 15면)와 문화일보(10월3일자 1면)가 강화 마니산을 마리산으로 표기하는등 일부 언론에서 마니산 지명개명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지리원 관계자도 "중앙지명위원회의 결정없이 지명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것이다"고 밝혔다.

강화 마니산 지명개명은 기독교계통 단체로 알려진 마리산 이름 되찾기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강화군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개명, 지역주민과 불교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본지 47호 15면 보도〉

첫 포교사고시 29일 실시

조계종, 39개 등록대학 졸업생 대상 21일 마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9일 서울·부산등 전국 7개지역에서 첫 포교사고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교원에 따르면 이번 포교사고시는 전국 39개 종단등록 불교대학졸업자와 96학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재적사찰 주지스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포교원 관계자는 "지난달 포교원이 발행한 포교사고시예상문제집에서 문제를 발췌하며 70점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16일부터 21일까지이다.

선원사 19일 대웅전 기공

팔만대장경 판각지로 알려진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가 오는 19일 대웅전 기공을 시작으로 본격 복원불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건립하는 선원사 대웅전은 지하 43평 지상 34평 전통사찰양식으로 오는 2000년 완공예정이다.

석왕사 유치원 가족운동회 2천여명 참석

"동심속에 엄마·아빠 불심 키워요"

"하나 둘, 하나 둘"

발목에 띠를 두른 청군·백군이 구호에 맞춰 한데 어울려 손을 맞잡고 숨가쁘게 반환점을 돌아온다. 여유부릴 사이도 없이 허리가 꺾이도록 뒤로 제쳐 사다리를 빠져 나오고, 엄마와 함께 물풍선을 던져 아빠의 얼굴을 맞추는 게임(인욕놀이)과 고행(림보), 윤회(링 던지기), 해탈놀이(단체줄넘기) 게임에 가을해가 짧기만 하다.

지난 1일 부천 부일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룸비니유치원(원장 영담) '가족운동회'에 참여한 4백명의 어린이들은 가족들과 모처럼 뛰고 뒹굴어 빨갛게, 파랗게 차려 입은 옷이 온통 흙 투성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 룸비니유치원 '가족운동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대로군(6 선화반)은 "매일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요"라며 아빠 이준기씨를 보며 찡끗 웃어 보인다.

파 토 타 기 를 끝으로 퇴장하는 운동장의 하늘엔 청팀·백팀을 외치는 2천여명의 어린이, 엄마·아빠의 불심어린 동심이 총총히 수를 놓는다. 〈필〉



◇2천여 룸비니유치원 가족이 참여한 '가족 운동회'는 어린이는 물론 엄마·아빠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다.

중앙승가대 이전 대책위 구성

조계종 118회 종회

지난달 28일 속개된 조계종 제118회 임시중앙종회는 중앙승가대 이전과 관련 종회 교육원 총무원 승가대이사회를 포함한 15인 '중앙승가대학 이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폐회됐다. 또한 소쩍새마을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중앙승가대학장 송산스님이 종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소쩍새 인수문제는 총무원과 승가대 이사회가 인수문제 전반을 검토, 인수결정 여부와 향후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속초 보광사' 문제에 대해서는 보광사를 조계종에 귀속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종회 총무분과위에 문제해결을 위임했다.

종회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10명의 동국학원 이사 후보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사찰 종토세 면제 백만인 서명운동 전개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했다.

위원장에 정휴스님

중앙승가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첫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정휴스님, 간사에 향적스님을 선출하고 5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정휴 성문 법성 향적 현응스님 등 5인 소위는 6일 모임을 갖고 승가대 이전등 정상화와 발전에 관한 활동방향을 토의한다. (5일 현재)

한편 중앙승가대는 동문 교직자 학인 등으로 수습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종회에서 학내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과 외부세력 개입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사를 표명했다. 대책협의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학장스님 사표 반려 △중앙승가대 대책위 재구성 △동국대 경주분교 승가학과 철회 등을 요구했다.

북한 수해복구 지원금 실천승가회, 모금운동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스님)가 오는 14일까지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금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실천승가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1차 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모금한 지원금은 종교인 협의회에서 추진중인 남북 해외 종교인대회 실무접촉시 전달키로 했다.

또 실천승가회는 불교운동의 정체성 확립과 장기적 종책연구사업을 위해서는 근본도량의 모범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3일 사무실을 보광사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구독신청: 737-0693

청교련 6개 지부·지회 추가 '조직강화'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지난2일 공주·부여 등 6개의 지부·지회를 추가승인하고 조직강화에 들어갔다.

이번에 승인된 지부는 공주(지부장 환성) 남원(지부장 정도) 보령지부장 정운)이며, 지회는 부여(지회장 정민) 논산(지회장 성공) 연기(지회장 적인)이다. 이로써 청교련은 총 16개의 지부와 지회로 늘어났다.

한편 부산 창원 여수지역에서도 청교련 활동을 위한 지부·지회 신청을 해 놓고 있다.

고혼영가 위령대재

서울구치소, 20일

서울구치소 불교분과위원회(회장 지원스님)는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구치소 광장 관음성상앞에서 '서울구치소 고혼영가 위령대재'를 봉행한다.

이번 위령대재는 구치소에서 비명에 간 유관순등 독립유공자와 사형수, 옥사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경주 역세권 141만평 "훼손 불보듯"

건교위 위원들 國監서 고속철 노선 전면 재검토 요구

고속철도관리공단이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도심통과와 함께 추진중인 경주 망산 남산 일대의 역세권이 무려 1백41만평(입주 예정인구 5만명)에 달해, 고속철 경주도심통과가 강행될 경우 문화재 대량훼손이 필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9일 고속철도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이 공개한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작한 〈고속철도역 및 역세권개발 기본구상〉에서 밝혀졌다. 이의원은 "고속철도관리공단은 지난 8월1일 국토개발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도 역세권 개발계획공개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우려해 보고사실 자체를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순범 한화갑의원(국민회의)등은 "경부고속철도 공사계획 자체에 무리가 많고 경주도심통과는 문화재파손의 우려가 높다"며 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주돈식 문체부장관은 지난 3일 포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경부고속전철 노선을 경주를 통과시키되 문화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건교부등 관련 부처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자 천도재 봉행

생명공양실천본부, 14~15일 수덕사서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장스님)는 오는 14일~15일 수덕사에서 장기증자와 회원을 위한 천도재 및 수련대회를 봉행한다.

특히 이번 천도재에서는 그동안 시신을 기증한 4인의 영가명복을 빌고 그들의 뜻을 기리게 된다.

생명공양실천본부는 이번 천도재를 통해 시신기증자와 장기기증자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장기증자의 사례발표와 동국대 박선영교수의 특강으로 생명공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게 된다.

11개 위원회 설치·전문위원 위촉

종단협 이사회, 한·중·일 우호회의 연락위 소집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남북수재민 돕기 의연금 모금 △각 위원회 설치 △한중일 불교 우호회의 연락위원회 소집 △정관보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남북 수재민돕기 의연금 모금은 조계종에서 2천만원 그외 종단에서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10월10일까지 모금키로 했다. 또한 종단협력위원회 남북교류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구성, 각 종단을 배정 위원장을 선임했으며 총 30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화엄사포교당 개원

연변 반야회, 오는 18일

중국 연변 조선족 불자들의 숙원사업인 사찰이 최초로 건립된다. 연변지역 불자들의 모임인 반야회는 오는 18일 연변 도문시에서 화엄사 포교당(주지 도고)을 개원하고 신행활동을 펼친다.

마지막호도기회

60년만에 찾아온 을해(乙亥), 복 돼지해 윤달

최고의 윤달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25일부터 윤(閏)8월

오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음력으로 윤(閏) 8월이다.
장의용품 업체에는 수의(壽衣)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반면 예식장 및 이삿짐업계는 예약이 끊겨 울상이다.
올해는 60년만에 찾아 온 을해(乙亥)년 "복 돼지"해.
하늘과 땅, 남녀 등 모든 음양이 "합일(合一)을 이뤄 올해 낳는 신생아들은 최고의 사주팔자를 지니며, 윤달에 결혼이나 이사를 하면 해롭고, 수의를 마련하면 재앙이 들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습중 윤달이 든 해에는 집안의 연로하신 어른께 효심을 전하기 위해 수의를 지어 올리는 미풍양속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무병장수하신다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런 장례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세상은 변했어도 노부모님에 작은 소망은 누구나 한결같이 간절합니다. 〈서울신문 95.9.18 보도내용〉



수의 가격 조견표

품 명	시중가	행사가	비 고
품4호(마)	640,000	350,000	일반품
품3호(천연마)	1,360,000	680,000	천연마 100%
품2호(보성포)	1,960,000	980,000	대마 수제, 순창 강포
품1호(특손삼베)	4,500,000	2,200,000	특산단지 지정품 특대마 100%

※댁으로방문하여 종류별 비교하여 드립니다.



캐디락 리무진 장의차

*전 회원에게 리무진 이용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 고급제품은 겹 삼베로 제작됩니다.
※ 남자 19가지, 여자 18가지 갖은 수의입니다.
※ 본(주)원품 수의는 특허청 의장등록 제159132호로 등록되었으며 농어촌 특산단지에서 생산된 고급제품으로 품질이 보증됨.

※이조목제기·병풍을 전시(윤달기간 할인판매)※



고급 오동박스

※전 제품을 장기보전용 오동박스로 포장하여 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수의판매 이익금 일부로 무의탁노인, 청소미화원, 뺑소니차 사망시 수의를 무료로 드립니다.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일반할부가능

※(주)원품은 손삼베 전문업체 입니다.

장례 토탈 서비스 안내

감자기 상을 당해 당황하는 상주님들을 위하여 일종에서 장지까지 전과정을 신속하게 무료 서비스합니다.

** 서비스 안내 **
■ 국내최초 장례무료 상담전화 개설운영 24시간
■ 장례행사 대행(전국체인연결) ■ 묘지상담알선
■ 파출부, 도시락(음식) 알선
■ 현재 평생회원제도 운영中(91년시행)

전국취급점모집
공휴일 및 주·야 24시간 전화상담받습니다.

본사영업부 (02)566-7676 종로:3673-5226

■광역시
무 산
대 구
인 천 462-3562
광 주 361-1349
대 전 627-9575

■경기도
수 원 216-6336
고 양 913-2181
원 당 915-4097
구 리 557-2166
성 남 721-5782
부 천 323-6484
분당 이천 (0342)756-8841
일산 파주 (0344)977-0031
김포 강화 (0341) 82-2818
안 양 61-0336
안 산 80-6690
의정부 876-8872
평 택 655-0966

■강원도
춘 천
강 릉
속 초
원 주

■충청도
천 안 582-3612
온 양 545-1533
청 주
충 성

■전라도
전 주 85-5130
군 산 452-0386
이 리 832-1944
대 천
서 산

장읍 김제 (0652)231-7694
목 포
순 천
여 수

■경상도
진 주 43-0880
경 주
구 미
포 항
마 산
거 제
진 해

충 무

■제주도
제 주 58-3023

(주)원 품
TEL 566-7676
제1공장 광주(주)반 석
제2공장 (특산단지)보신군 남고읍 아동리



겨울 노래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산다는 일은 사람이 건너야 할 사막에 들어섬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좀더 보람있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거의 모든 이들이 답변한 과제이면서도 요즈음 내가 자주 떠올리는 난제이다.

여자는 늦게 철드는 사람이라 하던가. 남편의 자질구레한 마음씀에 울고 웃고 아이들의 성장해가는 모습에 웃고 학교성적 때문에 웃고 또 울고 하는 나의 모습은 속인중의 속인이다. 인생을 예술로 친다면 후회없이 산다는 것 처럼 완성된 예술은 없을 것이다. 되도록 후회하지 않는 버릇을 길러왔다. 돌이켜 생각해도 별 수 없는 일을 두고 자꾸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와도 통한다. 웬만하면 용서하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또 만족하려는 자기 수행인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에 성불의 비결이 있고…

그렇게 조금씩 훈련을 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란 말을 하면 건방진 얘기가 될까.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던 눈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중년에 들어서면서 바라본 자신의 자화상은 어느덧 긍정주의자의 모습같다.

가을이면 아무리 가난한 이라도 거둘 것이 있다고 한다. 무엇인가 달성되지 못한 꿈으로 하여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수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은 철이 드는 일이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성불의 비결이 있다고 들었다.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진것이 스스로 찾아온다 하였으니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며…

이 주 숙 〈서양 화가〉

거친 파도를 넘어서 ②

주부신행담

농사일을 그만두기로 한 남편은 광주둔동 직후에 아곳에 와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없어 생활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친네 덮친다고 일년간격으로 아이를 임신해 많은 고민이 뒤따랐습니다. 남편은 어쩔수 없다는 듯 둘째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는 고귀한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입을 막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무등산에 있는 증심사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은 5백배 기도도 했습니다.

"둘째애 어디 자식없는 부잣집에 줍시다" 믿기지 않는 남편의 제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외삼촌의 도움으로 영업용택시 기사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마침내 둘째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렸던 남편이었지만 순산한 것만으로도 장하다며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연년생 아기를 키우자니 보통 힘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어느날 어두운 표정으로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뜻밖에 교통순경도 뒤따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3주 진단이 나왔지만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해서 남편은 날마다 피해자를 찾아가서 빌다시피 했고 많은 시일이 걸려서야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시간 일을 못한데다 벌금 20만원을 제대로 내지 못해 방세마저 축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둘째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데 남편이 종이쪽지에 무엇인가를 써서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아이 어디 자식없는 부잣집에 주는게 어떻겠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남편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당신 아빠, 당신 힘든 줄 알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아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남편은 가끔씩 이같은 제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내게 광주를 떠나 서울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사비용도 없는데다 아이들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참에 둘째를 누구 집에 주고 가자 했지만 저는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겠기에 우선 큰 아이를 잠시 시댁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 등에 업혀 몸을 흔들며 우는 아이를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내 자신이 그렇게 한탄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만 꿈벅이며 하늘을 쳐다 보았습니다.

서울로 상경해 시동생댁에서 보름동안 지내면서 마음좋은 시동생과 동서의 눈물어린 따뜻한 도움으로 돈을 빌어 월세방을 얻고 광주에서 이삿짐도 옮겨오고 시댁에 맡겼던 큰 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직장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다 나이마저 많아 아무데고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한참을 알아본 끝에 월 19만원의 괴혁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둘째 아이를 남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생각이 터무니없다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백일을 지나 사람들의 얼굴을 익히려는듯 방긋방긋 웃기 시작할 무렵 남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며, 결혼생활을 포기하든지 둘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양단간에 결정하라는 단호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 "'내가 전생에 무슨죄를 지었길래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내 자신이 그렇게 한탄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한 결혼을 이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미울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을 이해하는 지라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 죄없는 내 아이, 책임없이 낳기만 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말없이 아이의 옷가지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지만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발길 닿는대로 첫번 보이는 절에 계신 스님께 사정얘기를 하고 아이에게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주도록 할 것이라는 결심만 있었습니다.

오 정 숙 〈충제동 정토포교원〉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⑬

♦ Let one cultivate (the society of) a friend who is learned and keeps the Dhamma, who is magnanimous and wise; knowing the meaning (of things and) subduing his doubt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 Not adorning himself, not looking out for sport, amusement, and the delight of pleasure in the world, (on the contrary) being loath of a life of dressing, speaking the truth,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세상의 유희나 오락 혹은 쾌락에 젖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라. 꾸밈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Having left son and wife, father and mother, wealth, and corn, and relatives, the different objects of desire,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처자도 부모도 곡식도 재산도, 친척이나 모든 욕망까지도 다 버리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This is a tie, in this there is little happiness, little enjoyment, but more of pain, this is a fish-hook', so having understood, let a thoughtful man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이것은 집착이구나,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한 맛도 적고 괴로움뿐이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이구나'이와 같이 깨닫고 현명한 사람은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loath 무엇을 하기를 싫어하는
*subdue 이기다, 정복하다.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 리스 사용 —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잠버릇에 맞게 잘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품 품질보증

생활 속의 불교 ㊹

남의 목장의 소를 세며 사는 사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국정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민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간이 지속되면 자칫 나라 망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컴퍼스로 원을 그릴 때 중심이 흔들리면 둥근 모양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는 것과 같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중심잡기'란 배우 중요하다. 인생의 길, 학문의 길, 수행의 길에서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삶은 일그러진 모습이 된다. 둥근 원, 원융의 삶을 구현하기 어려워진다.

학문을 한다는 사람이 평생을 바쳐 남의 업적이나 뒤지고, 남들은 뭐라고 했는가에 관심을 쏟는다면 그는 끝내 '자기 것'을 일구어내지 못할 것이다.

수행의 길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그 수행이란 아무리 노력과 시간과 재물을 바친다 해도 형생 우왕좌왕에 그치고 만다. 제 스스로는 열성스런 불자라고 할지 모르나 고작해야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하며 환상을 좇거나 신상의 가피를 갈구하거나 도력 높은 스승을 찾는다며 몸만 분주하게 된다.

심지어는 떡 해놓고 빌고, 밥 해놓고 빌고, 부적을 만들어 벽에 붙이고, 베개 밑에 넣고 몸에 지니고…… 온갖 미신짓을 하기도 한다. 이사하고 결혼하는 데도 살이 끼었느니 방위가 안 좋다느니, 윤달이라느니 하면서 남의 말 듣고 갈대처럼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삶을 살아간다.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비유하자면 빈 집과 같다. 빈 집에는 부랑자들이 오며 가며 제 멋대로 드나든다. 못 걸승, 벌레들도 제 집처럼 들락거린다. 그러니 머지 않아 창문 뜯기고 벽 헐어지고 기둥 썩어 무너하게 된다. 때로는 영통한 놈이 들어와 제 집인 양 주인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심을 잃은 사람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심신이 황폐해져 속절없이 병고액난에 시달리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중심 잡기에 대해 '법등명 자등명'으로 대답하셨다. 자성부처에 귀의하고 가르침을 지표로 삼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자칫 현혹되기 쉬운 명호와 형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법'을 근본으로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래야만 비로소 누구나 천상천하유아독존의 그 독존(獨尊)이라 이름 만하다고 하셨다.

현대과학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불자라고 자부하는 이들 가운데 도력 찾고 영험 찾고 부적 찾는 이들이 있다. 오관을 솔중하게 갖추고 태어났으면서도 자성부처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 두리번거리며 남이 해 놓은 것을 구걸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들이 있다. 제 목장은 돌보지 않고 남의 목장의 소를 세는 사람들이다.

한 선사는 말한다.

"네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네게 줄 것이요, 네게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빼앗으리라."

자성부처에 대한 믿음, 일체가 나의 근본과 둘이 아님을 확고히 믿는 것, 그것이 '중심잡기'요, 주장자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인생 길, 학문의 길, 수행의 길에서 자신의 주장자는 있는가? 탕! 탕! 탕!

협찬: 한 마 음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